

살아있는 현대사 수업을 위한
교 사 연 수

일시 : 2006년 6월 10일 14시 ~ 11일 14시
장소 : 복사골연수원, 6월항쟁 유적지

주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주관 : 광주역사교사모임, 전남역사교사모임,
전교조 광주 5·18공교육특별위원회, 한국역사교육학회

■ 일정

- 6월 10일 토요일. 복사골연수원

14:00~15:00	○접수
15:00~18:00	○연수 1 · 주제 : 청소년을 위한 민주화 운동 수업 지도안 개발 · 강사 : 권재원(한국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서울 도곡중 사회교사) 구민정(한국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서울 구덕중 사회교사)
	○저녁식사
19:00~22:00	○연수 2 · 주제 : '시민교육'을 공적 영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조사, 분석 사례 보고 · 강사 : 김원태(전국사회교사모임 부회장, 평택공고 사회교사)
22:00~	○자유토론

- 6월 11일 일요일. 6월민주항쟁 유적지

09:00~12:00	○6월민주항쟁 유적지 탐방 · 코스 : 숙소→ 이한열기념관 → 전태일거리 → 명동성당 → 서울시청광장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안내 및 설명 :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대한민국史저자)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평가

차례

* 연극을 활용한 민주주의 교육의 이론과 실제

I. 서론	1
II. 민주주의 교육의 목표로서 민주주의의 공고화	
1. 민주주의 개념의 조작화	2
2. 민주주의 이행기와 공고화	4
3. 한국의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제: 숙고와 참여의 문화	5
III. 민주주의 교육과 연극	
1. 민주주의 교육의 장애요소	6
2. 숙고·참여 민주주의 교육에서 연극적 기법의 효과	7
3. 연극을 활용한 수업의 유형과 효과	7
IV. 연극을 활용한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1. 체험 6월 항쟁- 유사사태 극화 학습	8
2. 비민주주의 체험 역할 놀이 학습	11
3. 가상 체험학습-검열과 창의성, 그리고 민주주의	16
4. 비민주주의 개선 역할극 수업	19
5. DIE 학습: 공공문제의 민주적 해결	21
참고문헌	26

*** 유럽과 한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비교**

- 영국·프랑스의 시민교육과 독일의 정치교육을 중심으로 -

I. 읽어 볼 거리 (왜 학교 시민교육인가?)	28
II. 한국 학교 시민교육	
1. 학교 시민교육	31
2. 한국 학교 시민교육의 현실	33
3.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	36
III. 영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1. 영국 새 교육과정과 시민교육의 목표	40
2. 시민교육 교수 내용 사례	46
IV. 프랑스 학교 시민교육	
1. 학교의 '시민교육' 교과서의 설치 배경과 내용	49
2. 프랑스 '시민교육' 교과서 목차 내용	53
3. 프랑스 교과서 내용의 실제	57
V. 독일 학교 정치교육	
1. 독일 정치교육의 뜻과 발전 과정	87
2. 독일 정치교과서 목차 내용	90
3. 독일 교과서 내용	93
참고문헌	111

연극을 활용한 민주주의 교육의 이론과 실제

권재원(한국교육연구소)

구민정(신암중학교)

I. 서론

민주화는 권위주의나 전체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화하는 이행기 뿐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정착하는 공고화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완성된다(Linz & Stepan, 1996).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이행기는 거쳐왔으나 공고화는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송호근, 1997; 최장집, 2002) 물론 노골적인 억압은 한국에서 거의 사라졌지만, 민주주의의 절차, 가치, 문화가 시민사회의 곳곳에 보편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후기 전체주의나 권위주의로 역이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라틴 아메리카의 선례들은 보여주고 있다(Linz & Stepan, 1996).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주의 교육은 아직도 민주주의 공고화 주역 육성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 민주주의의 현 상태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숙고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이행기를 갖 거친 한국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은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마저 생활화 되어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청소년들이 가진 참여·실천 기회를 고려하지 않았다.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생활화 되어있지 않은 한국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숙고하고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교육은 먼저 청소년들이 민주적 절차를 익히고 내내 ~~내내~~ 한다. 그리고 직접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가상의 상황에서 숙고·참여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II. 민주주의 교육의 목표로서 민주주의의 공고화

1. 민주주의 개념의 조작화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념은 고대 그리스 보다는 자연법사상과 근대 계몽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여러 가치들과 관련된다. 그런데 이들 사상은 서로 일관되기 보다는 오히려 상호 모순되기도 한다. 로크는 개인의 이성을 신뢰하였으나 홉스는 불신하였다. 반대로 로크와 홉스는 각각 개인과 정부에 대한 믿음은 공유하였으나 정부에 대한 견해가 상반되었다(Baradat, 1984, pp. 121-148).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적 민주주의자들의 사상은 이성을 가진 인간의 존중, 다수에 의한 통치, 그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의 행사라는 원칙들로 압축되고, 오늘날까지도 이는 민주주의라는 가치 체계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Baradat, 1984; Dahl, 1999).

이와 달리 이념 48신

한 포퓰리즘적 민주주의 문화를 만들어 내기, 순차적 민주주의의 개념과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사회민주화를 포함하지 않고, 단지 다수결과 선거제도만 구현되고 있다. 이는 민주적 민주적 형식이 아닌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Collier & Levitsky, 1995; 임혁백, 1997).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엘리트와 대중이 공히 민주적 절차와 규범을 안정화, 제도화, 일상화, 내면화”(임혁백, 1997, p. 28)을 의미한다. 송호근(1997)은 민주주의를 정치·사회·경제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 세 차원 모두에서 민주적 절차와 행위규범, 문화가 내면화 된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규칙은 다양하였고, 실질적 민주주의는 그 규칙이 적용될 범위와 깊이를 제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민주주의의 규칙이 사회의 전 영역으로, 또 개인에게 내면화 될 수준으로 정착되는 것이 실질적 민주주의인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정치적이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는 문화적이며, 규범적이며, 내면화 된 것은 사회를 통하여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가 될 ‘민주주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규칙들이 사회 각 영역에 고루 적용되고, 이것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상화, 내면화 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간략히 표현한다. 1) 다양한 사회 문제를 형성하는 이유, 2) 개방적인 시민의 갈등의 허용과 토론을 통한 합리적 해결, 3) 대의체의 개방성과 협상, 4) 이러한 것들이 구현되기 위한 기회의 실질적 평등, 5) 이러한 것들의 시민 개인의 일상화와 내면화 될 수 있다.

2. 민주주의 이행기와 공고화

절차적 민주주의에만 입각한다. 민주주의(민주주의)란 권력(권력)의 규격(규격)과 권력(권력)의 민주적 내용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은 이러한 과정을 이끌어낸 시민사회에서의 조직적인 사회운동이다. 즉 폴리아키가 억압적 체제로 기능하고 있을 때 이를 민주적 정치체로 바꾸는 것이다(Linz. & Stepan, 1996; 윤상철, 1999). 반(반)민주주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민주주의)의 확산(확장)을 의미한다. 억압적 정치체(정치체)를 민주적 정치체(정치체)로 대체(대체)한 후(후) 국가(국가)와 시민(시민)에 민주적 절차(절차)·규범(규범)·문화(문화)가 일상화(일상화) 내(내)지(지)는 과정(과정)을 의미(의미)한다. 이렇게 민주화와 민주화 운동의 정의를 내리(내리)는 민주화 운동(민주화 운동)과 함께 민주주의(민주주의)로 이행(이행)해야 하는 비민주적 정치체(정치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Linz와 Stepan(1996)은 민주화 운동이 혁파하고자 하는 비민주적 억압체를 권위주의, 전체주의, 후기 전체주의, 그리고 술탄주의로 정리하였다. 권위주의는 지도자나 지도그룹이 제시한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워낙 강해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억압체다. 전체주의나 후기 전체주의는 소수가 지배자나 지배 집단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물리적 폭력도 동원되는 경우다. 술탄주의는 이러한 억압체가 종교적 후광을 가진 지배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다. 이러한 각종 억압적 폴리아키는 산업화보다 정치체도를 먼저 외부에서 이식한 신생독립국가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들 나라에서 억압적 정치체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는 주로 냉전과 근대화다. 그런데 이러한 억압이데올로기는 스스로를 해체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냉전은 동·서 양 진영 모두 자신들이 상대방보다 민주적임을 주장해야 할 압력을 주고, 근대화는 지식인, 노동자 등의 근대적 계급을 성장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가치가 보편화되며 시민사회도 성장하게 된다. 결국 냉전·근대화 이데올로기는 오히려 억압체에 대항하는 민주적 동맹형성의 동력이 되고, 시민사회는 권위적 통치를 거부하게 된다. 마침내 분출하는 시민사회와 억압체의 갈등이 일상화되고 제도화 되(되)는 억압적 정치는 각 나라의 동일(동일)한 권위(권위)와 폭력(폭력)이 민주적(민주적)인 정부에게 자리를 내 주거나, 민주화 된다.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권위주의나 전체주의는 하나의 에피소드이며 민주주의가 대세가 되는 것이다(Lipset, 1960; Przeworski & Limongi, 1997).

민주주의 이행기와 공고화기에 서로 다른 과제가 부여된다. 이행기에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집단들의 강고한 동맹과 이를 바탕으로 억압적 정부를 패퇴시키는 것이 주요과제다. 따라서 민주화 운동은 주로 정치사회에서 일어나

게 된다. 공고화기에는 주로 가치관과 태도가 문제가 된다. 이는 시민들에게 내~~각각의 민주주의~~ 투쟁을 요구하며, 민주적 생활방식을 전 영역에 정착시키는 교육·문화 영역에서의 운동이 정치사회에 비해 보다 중요하다(임혁백, 1997).

3. 한국의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제: 숙고와 참여의 문화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정은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특히 권력에서 축출된 군부세력이 완벽하게 일소된 것은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사례와 비교할 때 경이적이다. 그러나 정치사회를 들여다보~~면~~ 동에서 시민사회의 강한 전투력은 정치사회 내의 반정부 집단의 허약성의 반영일 뿐이다(최장집, 2002, pp. 95-125). 냉전체제하 분단 상황은 북측에는 좌편향적, 남측에서는 우편향적 정치집단만 남겨놓았다. 한반도 남단에 존재하였던 야당은 여당과 정치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집단이었고, 단지 여당의 권력 독점에만 반대했을 뿐이다. 이는 대립하는 두 정당이라기보다 동일 정당내의 계파에 가깝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사회에는 시민사회의 특정한 계층이나 요구를 반영하는 계급정당이 존재하지 않았다(최장집, 2002, p.22; 송호근, 1997).

이러한 상황은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를 전투적으로 만들고, 보수적 정당들은 전투적 시민사회(이른바 재야단체들)와 학생운동의 압력에 밀려 할 수 없이 행동에 나섰다. 그러나 일단 이행기를 거쳐 공고화기에 접어들자 민주화 세력의 대중동원력이 약해졌다. 한국전쟁의 상흔으로 인해 강고하게 내~~각각~~ 된 냉전논리가 중요한 원인이다. 시민운동과 학생운동 세력은 기성정당에 동원력에서 뒤지게 되었고, 대중들이 기성정당들이 구사한 지역주의에 의해 동원되~~지~~ 그 결과 민주주의 이행은 모범적이었던 한국이 공고화를 완수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한국의 경제수준을 보~~면~~ 체주의로 퇴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Przeworski 와 Limongi(1997)에 따르~~면~~ 어렵다. 이는 그 사회의 구조가 근대화 되고, 산업노동자와 계몽적 지식인 등 근대적 계층·계급이 사회 주류를 형성했다는 지~~표~~ 때문이다. 그러나 퇴행의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 민주주의 공고화의 지체 가능성은 충분하다. 민주주의가 경제·시민사회까지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가 공고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정치사회를 넘어 경제·시민사회까지 삼투해 들어가야 한다. 이는 시민 개개인이 민주적 태도, 사고방식, 혹은 신념의 체계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이행기의 무대는 정치사회였지만, 공고화의 무대는 생활세계와 문화의 영역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절차와 이념에 대한 이해와 함께 숙고와 참여의 문화를 일상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숙고의 문화란 갈등의 상황, 혹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근거와 논의를 바탕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문화다. 참여의 문화란 같은 상황에서 스스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화다. 이때 참여는 단순한 동원이 아니라 숙고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참여라야 한다. 이러한 태도와 문화,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정보와 사고능력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다.

III. 민주주의 교육과 연극

1. 민주주의 교육의 장애요소

지금까지 한국 민주화 이행기의 특징과 공고화를 위한 과제들을 살펴보고, 결국 이는 시민의 사고방식, 가치, 태도, 문화 등 생활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숙고의 문화와 참여의 문화가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문화는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 개입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숙고와 참여의 문화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 청소년들에게 숙고·참여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중대한 장애물들이 있다. 첫째, 정보와 기술의 부족이다. 공부와 선발의 목적전치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실제로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토론과 사유의 기술은 거의 전무하다. 이러한 조건들은 숙고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전제들이다. 둘째, 그러한 능력을 갖춘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숙고하여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학생회는 유명무실하며,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은 폐쇄적이며 일방적이다. 여기에 대한 청소년의 어떤 참여도 배제되어 있으며, 오히려 학칙에 의한 제제를 받는 형편이다. 셋째, 우리나라 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감안하

한 논쟁학습, 체험학습 등의 적용이 거의 어렵다.

이러한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업이 필요하다. 첫째, 숙고에 필요한 정보와 기능이 부족한 우리 청소년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숙고 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이다. 둘째 청소년들이 선택의 예상되는 결과를 반성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체험적 수업이다. 이때 실제 체험의 기회가 많지 않음을 감안한다.

2. 숙고·참여 민주주의 교육에서 연극적 기법의 효과

지금까지 민주주의 공고화에는 시민 개개인의 민주적 자질이 필수적이며 이는 숙고와 참여의 문화로 압축됨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처한 여러 상황들이 이러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흥미와 가상적 체험을 통하여 이를 극복해야 함도 확인하였다. 이때 주목할 수 있는 수업모형이 연극적 기법을 활용한 수업이다. 연극적 인지는 일상생활세계에 수립한 가설(만약~이라)은 가상의 구성(극화)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증명하는 과정이다. 즉, 허구와 모방을 통해 실재(reality)에 대한 지식을 구성한다. 이러한 드라마적 인지는 감각을 통해 현실(actuality)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거나, 실재가 미래형일 경우 가장 유용한 인지수단이다(황정현, 2001).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매개된(mediated)활동을 통한 인지라고 한다. 가치의 내재화는 단순 경험이나 경험을 매개된 활동을 통하여 인지적으로 획득되며, 이때 인간과 인간의 실제적인 관계는 이러한 활동의 기반이 된다(Vygotsky, 1982). 이는 민주주의와 같이 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능력은 현실적인 사회적 경험 속에서 획득되지, 문어(written language)를 통해 획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을 상상적으로 매개하는(imaginary mediation)활동이 바로 놀이나 예술적인 활동이다. 연극의 교육적 효과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연극은 실제 경험하지 않았거나,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을 상상을 매개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숙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숙고의 과정이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현됨으로써 참여의 효과도 가지는 것이다.

3. 연극을 활용한 수업의 유형과 효과

연극을 활용한 수업이 민주주의 교육에 숙고와 참여의 간접 체험기회를 제

공감을 확인하였다. 그렇다. ~~이 문장은 인공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극을 활용한 수업모형은 지금까지 심리치료나 언어교육 분야에서 많이 개발되어왔다. 그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TIE(Theater in Education),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그리고 DIE(Drama in Education)이다. 이들의 특징을 비교해 보 ~~자. 다음은 각 모형의~~

	연극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DIE
목표	무대를 통해 구현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비판적 사유	상황에 따른 역할취득과 행동의 개선	실제와 유사한 모의체험	사회생활에 필요한 반성적 사고력과 상호작용 능력
구성	연극의 공연, 그리고 공연 후의 팔로우업	상황 및 역할에 대한 설명, 역할에 따른 즉흥적 연기, 그리고 팔로우업	정교하게 구성된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와 가깝게 재현함	상황 선택, 대본구성, 연기, 그리고 팔로우업
대본	완성된 대본이 있다.	완성된 대본은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다. 그러나 완성된 대본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	완성된 대본이 있다.	완성된 대본 있으나 이를 학생들이 연습과정속에서 만들어 나감
배역	대본에 따라 결정된다.	역할이 먼저 결정되고, 역할끼리의 가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본이 성립된다.	구성된 상황에 따라 배역을 결정한다.	구성된 상황에 따라 배역을 결정한다.
연출자	연극을 완성하기 위한 연출자가 있다.	연출자를 대신하여, 교사는 문제제기자의 역할을 한다.	교사는 상황이 실제와 유사해 지도록 지도한다.	교사는 연출자 겸 안내자로 개입한다.
연기	훈련받은 연기자가 주어진 대본에 따라 연기	주어진 상황·역할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둔다.	실제와 가장 유사하도록 연기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구성한 대본에 따라 연기한다.
관객	무대와 객석 분리	관객은 따로 없다.		관객은 따로 없다.

IV. 연극을 활용한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1. 체험 6월 항쟁- 유사사례 극화 학습

가) 수업개요

이 수업에 적용된 모형은 유사사례를 통한 극화 학습이다. 사실 이러한 형태의 공인된 수업 모형은 없으며, 이는 연구자가 새로이 개발한 모형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을 극화함으로써 6월 항쟁을 간접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6월 항쟁을 직접 극화하여 체험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6월 항쟁의 주요 역할 당사자들인 정치인, 대학생, 재야운동가, 화이트칼라에 대해 청소년들이 공감하

고, 역할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6월 항쟁과 비슷한 상황을 국가 차원이 아니라 교실 차원에서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6월 항쟁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6월 항쟁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간접 체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6월 항쟁으로 유하는 것 까지를 포함한다. 이 수업의 진행은 [그림 2]와 같다.



나) 상세 지도안

○ 학습 목표

- ① 억압적인 상황을 민중의 힘으로 민주화 시키는 경험을 유사한 간접경험을 통해 체험한다.
- ② 간접 경험한 유사 사례에서 6월 항쟁을 유추할 수 있다.
- ③ 6월 항쟁의 의의를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 준비물

교실 민주화를 보여주는 이야기(예: 황석영의 소설 '아우를 위하여'), 6월 민주화 운동 사료집, 6월 민주화 운동 기록 영상물(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역사다시보기-셋』), 캠코더, 멀티비전, 연극 공연에 필요로 하는 공간·소품 등, 유추에 필요한 자기주도적 학습지.

○ 유의사항

- ① 이 수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6월 항쟁의 투쟁 당사자들의 입장에 공감하고 이를 통하여 역할 취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접체험용 사례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도록 교사의 적절한 발문이 필요하다.
- ② 이 수업은 유추라고 하는 고차적인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 조작기에 완전히 들어서지 못한 저학년에게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수업이다. 이 경우에는 편집된 6월항쟁 자료화 ~~가 수업의 일부분으로 활용될 것~~ 일 것이다.
- ③ 이 수업을 여기 제시한 2차시 동안 마무리 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제작 및 공연

○ 교수-학습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비고
	학생 활동	교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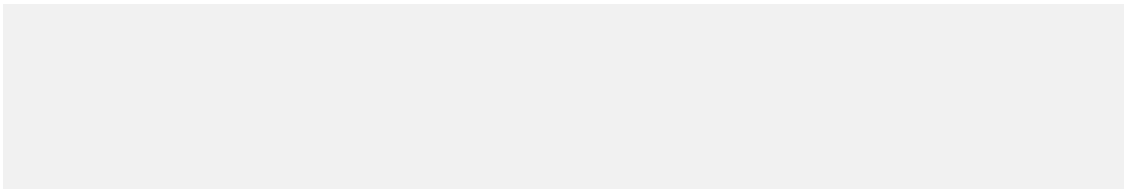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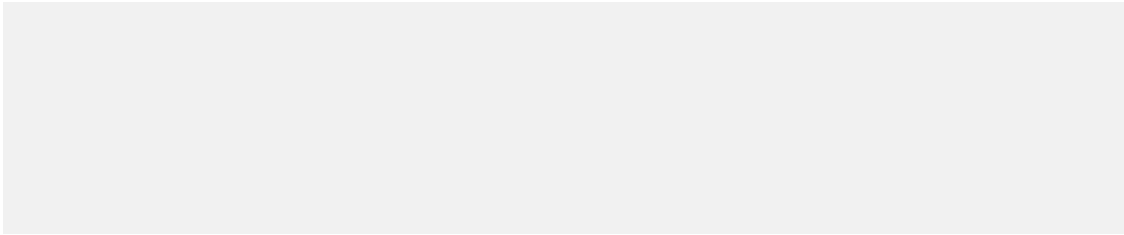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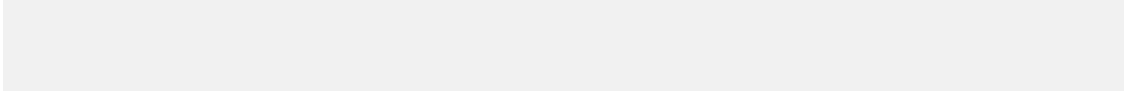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비고
	학생 활동	교사 활동		

2. 비민주주의 체험 역할 놀이 학습

가) 수업개요

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수업 모형은 역할 놀이(Role Play)학습이다. 역할 놀이 학습은 주어진 대본이 없으며, 서사도 없다는 점에서 연극이 아니다. 역할 놀이 학습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이해하고, 그 역할에 마땅한 말과 행동을 상상하여 표현한다. 그렇게 서로 자신의 역할에서 상호작용 한 뒤, 다시 자신으로 돌아와 그 체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

게 된다. 역할놀이 수업의 일반적인 모형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제시하
림 3]과 같다.



3. 가상 체험학습-검열과 창의성, 그리고 민주주의

가) 수업개요

이 수업에서는 선행조직자에 의거한 가상(simulation)학습 모형이 적용되었다. 그 대략적인 절차는 [그림4]와 같다. 이 수업은 이미 구성된 선 개념 체계를 이용하여 새로이 주어지는 정보들이나 자료들을 구성함으로써 가상의



실험을 하는 수업이다. 이에 따라 이 수업에서는 검열에 대한 지식을 응용하여, 실제 검열 상황을 구성해 봄으로써, 그 폐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다.

나) 상세지도안

이 수업 모형은 크게 2차시로 구성된다. 1차시는 검열조가 검열 지침을 만들고, 창작조가 자유로이 창작하는 시간이다. 2차시는 검열조가 창작조의 작품에 대해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며 이를 강제하는 시간이다. 이때 창작조는 자신들의 작품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하며, 창작조가 끝내 수정을 거부할 경우 검열조는 임의로 삭제·수정을 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감상을 공유함으로써 수업을 마무리 한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표 4>와 같이 편성된다. 주 편성은 학생들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검열조와 창작조의 구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학생들을 배치해야 전체적인 수업의 흥미가 높아진다. 조의 수와 조별 인원은 학급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 할 수 있으나 한 조가 6명이 넘어가게 되지 않도록 한다.

검열조	5~6명	1. 자신들 나름의 가치관 혹은 기존 군사독재 시절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예술·창작품에 대한 검열 지침을 작성하여 공포한다. 2. 창작조들의 작품을 수합하여 자신들의 지침에 따라 수정·삭제를 요구한다. 3. 창작조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수정·삭제한다.	
창작조	소설	5~6명씩 2개 조 공동 작업으로 소설을 작성한다. 그러나 실제 소설을 주어진 시간에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설의 형태는 줄거리 요약으로 한다.	청문회에서 검열조의 수정·삭제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논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거나 검열을 피해가는 방법을 고안한다.
	노래	5~6명씩 2개 조 작곡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존 노래에 가사를 창작해 붙이고, 이를 직접 불러 발표한다.	
	영화	6~7명 소설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중요 장면이나 스틸컷과 대사를 첨부하며, #장면 설명을 줄거리 요약에 작성한다.	
	만화	6~7명 8컷의 만화, 혹은 1컷 카툰 네판을 제작한다.	
			장르는 반드시 이대로 하지 않아도 되며, 학급 규모에 따라 조를 늘릴 수도 있음.

○ 교수학습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비고
	학생 활동	교사 활동		

4. 비민주주의 개선 역할극 수업

가) 수업개요

이 수업에 적용된 수업 방법은 역할극, 혹은 역할 놀이이다. 이는 연극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즉흥적이라는 점에서 연극이 아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경험을 재구성 하고, 대안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진행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며, 이를 자신의 내 ~~내~~ ~~수업~~ ~~을~~ ~~체~~ ~~계~~ ~~있~~ ~~게~~ ~~하~~ ~~는~~ ~~것~~ ~~이~~ ~~중~~ ~~요~~ ~~하~~ ~~다~~. 이 수업의 진행을 [그림 5]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나) 상세지도안

학습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비고
	학생 활동	교사 활동		

5. DIE 학습: 공공문제의 민주적 해결

가) 수업개요

여기에서 DIE라 함은 교육연극(Drama in Education)을 의미한다. 교육연극은 대본이 있다는 점에서 역할놀이와 다르며, 대본의 구성과정과 연습과정의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연극과 다르다. 이 모듈은 그러나 단지 교육연극이 아니다. 이 모듈은 팔로우 업 단계에 논쟁학습을 결합시킨 연극-

논쟁 수업모형에 따라 구성되었다. 연극-논쟁 수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권재원과 구민정(2004)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수업의 기본 구성을 단순화시켜 표현하라.

나) 상세지도안

○ 학습목표

- ① 공공문제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 ② 공공문제에 대하여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 ③ 공공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론을 할 수 있다.
- ④ 공공문제를 공적인 가치에 비추어 평가할 수 있다.
- ⑤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비판적으로 검토, 분석할 수 있다.

○ 준비물

쟁점이 되는 사례를 소개하는 자료들, 논쟁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자료들, 적

어도 2대 이상의 인터넷이 연결된 개방된 컴퓨터, 기타 토론 및 간단한 상황극 공연에 필요한 장비들과 충분한 공간. 의사결정표(아래 예시 참조) 투표합과 투표용지

<의사 결정표 작성 요령>

* 평가 항목은 미리 만들지 않고, 논쟁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요약하여 작성한다. *각 셀마다 - 나 +의 합이 다섯 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각 셀마다 표시된 +와 - 표시를 합산한다. *찬성할 경우의 +갯수의 합계와, -갯수의 합계, 또 반대할 경우의 +갯수의 합계와, -갯수의 합계를 합산하여 입장을 결정하고 투표에 참가한다.

○ 유의사항

- ① 이 수업의 목적은 연극을 완성도 있게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가상적인 체험과 성찰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학적 측면으로 지나치게 흐르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② 무대에 올라가는 상황극은 닫힌 대본이 아니다. 역할을 맡은 학생의 성찰에 의해 대본의 수정이 가능하며, 토론 결과 대사나 구성이 바뀔 수도 있다.
- ③ 팔로우업은 교육연극의 심장이다. 따라서 상황극 공연이 종료된 뒤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④ 토론의 주제는 연극에서 묘사된 공공쟁점의 예상되는 결과들이지 연극 그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연기나 연출의 특정 부분을 가지고 논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교수학습

학습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비고
	학생 활동	교사 활동		

참고문헌

- 권재원, 구민정(2004). 연극-논쟁 수업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 청소년 문화활동을 통한 고차사고력 함양을 위하여. 『한국교육연구』, 10(2), pp. 34-63.
- 김창화(2003). 『청소년을 위한 연극교육』. 서울: 문음사.
- 남세진(1997). 『역할놀이』. 서울대학교 출판부.
- 민병욱(2000). “창의적 드라마의 교육적 효용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연극학』, 15, pp.149-184.
- 송호근(1997). “배제된 민주화와 유보된 이중진화”, 최장집, 임현진 편(1997). 『한국사회와 민주주의-한국민주화 10년의 평가와 반성』 서울: 나남출판.
- 임혁백(1997). “자연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정치민주화의 과정과 문제점”, 최장집, 임현진 편(1997). 『한국사회와 민주주의-한국민주화 10년의 평가와 반성』. 서울: 나남출판.
- 임현진(1997). “한국 민주화의 과제: 포용과 융합의 사회발전을 위하여”, 최장집, 임현진 편(1997). 『한국사회와 민주주의-한국민주화 10년의 평가와 반성』. 서울: 나남출판.
- 최장집(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 서울: 휴머니티스.
- Baradat, L.P.(1984). *Political Ideologies: their origins and impact*.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신복룡 외 옮김(1986). 『현대정치사상』. 서울: 평민사.
- Collier, D. & Levitsky, S.(1995). *Democracy with Adjectives*. 임혁백(1997)에서 재인용.
- Dahl, R. A.(1989). *Democracy and its Critics*. Yale Univ. Press.
- (1998). *On Democracy*. Yale Univ. Press./ 김왕식 외 옮김(2002). 『민주주의』. 서울: 동명사.
- Ginsberg, B., Shefter, M.(1999). *Politics by other Means: Politicians, Prosecutors and the Press from Watergate to Whitewater*.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Hampshire, S.(2000). *Justice is Conflict*. Princeton Univ. Press.
- Joyce, G. & Weil, M.(1986). *Models of Teaching(3rd ed.)*. Englewood Cliff, NJ.: Prentice Hall.
- Linz, J. & Stepan, A.(1978). *The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 Baltimore: John Hopkins Univ. Press.
- (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John Hopkins Univ. Press.
- Lipset, Seymour(1960).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New York: Double Day.

- Marzano, R.J. & Arredondo, D.E.(1986). *Tactics for Thinking*.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O'Donnell, G.(1973).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Berkely: Univ. of California Press.
- Oliver, D. W. & Shaver, J. P.(1966). *Teaching Public Issues in High School*. Boston: Houghton-Mifflin Co.
- Orlich, D.C, Harder, R.J., Callahan, R.C., Kravas, C.H., Kavchak, D.P., Pendergrass, R.A., & Keogh, A.J.(1985). *Teaching Strategies(2nd ed)*. Lexington, MA :Heath.
- Przevorsky, A., Limongi, F.(1997). Modernization: Theories and Facts, *World Politics*, 49(2).
- Shaftel, F.R., Shaftel, G.(1967). *Role Playing for social value: Decision making in the social studies*. Engl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1982). *Role Playing in the Curriculum*. Engl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Sweeny, J.A.C., Parsons, J.B.(1975). Teach preparation and models for teaching controversial social issues, In Muessig, R.H(Ed.). *Controversial issues in the social studies: A contemporary perspective*. Washington D.C.: National Council for Social Studies.
- Taba, H.(1987). *Teacher's Handbook for elementary Social Studies*. Palo Alto, CA: Addison-Wesley.
- Van Cleaf, D. W.(2001). *Action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Boston: Allyn & Bacon. / 남경희 외 옮김(2001). 『사회과 교수·학습론』. 서울: 교육과학사.

유럽과 한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비교

-영국·프랑스의 시민교육과 독일의 정치교육을 중심으로-

김원태 (평촌공고, kwt58@hanmail.net)

I. 읽어 볼 거리 (왜 학교 시민교육인가?)

“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불거지자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삼성공화국, 부패공화국, 서울공화국 ….. 언뜻 그럴듯한 말들이지만, 공화국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 부패공화국,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부패민주주의’, ‘삼성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다.

2002년 프랑스 대선 당시 극우파 국민전선의 당수가 결선투표에 나오게 되자, 고등학생 10여만명이 “공화국을 지키자!”는 펼침막을 내걸고 거리시위를 벌였다.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공화국 이념을 통하여 공공성, 사회정의, 톨레랑스, 연대의식 등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라마다 공화국 이념은 역사과정 속에서 그 내용을 보듬고 채워가는 것이다. 군주제 대안으로 제기된 공화국에 대해, ‘종신이 아니며 세습되지 않는 국가수반의 권력을 원칙으로 하는 나라’에서,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의 의미로, 나아가 ‘자유로운 시민들이 공익을 목표로 하는 사회로서 법의 권위가 지배하는 나라’에 이르는 여러 개념 규정이 가능한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는 나라의 정체성으로 민주주의와 함께 공화국 이념을 헌법 제1조 1항에 규정하고 있지만, 공화국 이념의 내용을 채우려는 모색과 노력은 거의 없었다. 우리의 근대 공화국의 역사도 60년 가까이 되어 그 대표적인 나라 프랑스의 4분의 1이 넘는 기간을 보냈다. 공적(公)의 원(res publica: ‘공적인 일’)이 요구하는 공공성만이라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되찾는 뜻도 있을 것이다.

공공성은 궁극적으로 분배의 제도화를 요구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분배를 말하

나눔의 반대는 '독차지'인 데 비해, 분배의 반대는 '성장'이기 때문이며, 나눔은 사적 영역으로서 시혜나 기부의 의미를 갖는다. 분배는 공적 영역으로서 조세정의 등 제도화를 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보유세, 양도세 강화에 대해 수구언론은 '세금 폭탄'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조세 저항을 부추기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이라

그리고 이른바 '공기'라는 언론은 독재정권과 자본의 충실한 마름이 되어 공익을 지향해야 하는 소명을 배반해 왔다. 그리하여, 토지공개념 조차 위헌이라고 주장될 만큼 공공성이 실종되

[홍세화, 나눔과 분배, 그리고 공공성, 한겨레신문 05.08.25]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2년전 총선과 비교할 때 금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관심은 극적인 반대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더 큰 충격은 민주사회에서 보기 드문 완승과 완패라는 일방성이었다. 극적인 반대의동과 일방성의 결합, 이 두 가지는 특정정부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넘어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이러한 이중솔림현상의 부정적 효과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핵심문제는 민주주의 발전, 유능하고 안정적인 민주정부, 민중의 삶의 질 향상, 이 셋 사이의 상관관계가 너무 낮다는 점이다.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이제 조건·제도·리더십, 민주주의의 세 기본 요건에 대한 대안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먼저 민주주의 조건 수준의 요체는 민주화와 세계화·시장화·양극화가 함께 진행되며 사회통합을 해체하고 있다는 점과 직결된다. 문제는 이들 현상 사이의 높은 중첩성과 상관성이다. 양극화의 경우 1분위와 10분위 소득격차 49.5배, 3년 연속 출산율 세계최저, 20대 전반 사망원인 1위 자살, 전체 자살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 및 40대 이상 1위, 교육과 부동산 격차의 극도의 심화 등을 노정, 이러한 절망적인 사회경제적 인간적 지표에도 기존 사회구조나 정책을 지지하라는 요구는 수용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세계화·시장화·양극화가 민주정부의 역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계로 치달아, 한국의 민주주의가 누적된 정책선택의 결과 점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조건 속에 포위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요소인 사회통합이 해체될 때 저항은 시장이 아니라 민주정부와 민주주의 자체를 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반드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화를 지향한다. 일부 유럽민주국가들은 아예 '사회국가' 건설을 헌법에 국가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최근의 민주주의 이론에 따를 때 민주화와 사회화의 궁극적 지향은 사회품위지수나 인간발달지표를 포함한 인간화로 모아진다. 인간화를 위한 사회정책 없는 민주주의 발전은 요원하다. 세계화, 예컨대 한미FTA 역시 사회통합해체를 촉진한다. 그것은 각각 경제개혁을 넘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요소가 될 것이다.”

[박명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한겨레신문 06.06.06]

2004년 모경환·이정우(서울대 사대)가 수도권 초·중·고생 460명을 대상으로 행한 “좋은 시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모경환·이정우, 79).

“학생들은 ‘좋은 시민’의 자질로 ‘타인에 대한 배려’, ‘일차집단에서의 헌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권위에의 복종’을 가장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학생들은 비정치적 차원, 소규모 공동체, 개인적 윤리와 관련된 시민성을 정치적 차원, 국가적 측면, 관련된 집단과 관련된 차원보다 더 중시하고 있었다.”

II. 한국 학교 시민교육

1. 학교 시민교육

(1) 학교 시민교육의 뜻

시민은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민주국가의 시민적 자질의 함양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민주국가의 특성상 시민(국민) 자체가 중요한 여론의 형성과 정책결정의 궁극적 주체이며, 대의 정치를 할 경우 선거권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국가의 시민이 국가 사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못하고 각자의 책임에 소극적이 되면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말 것이다. 민주 시민은 현대의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지적으로 대처하고 직면하는 많은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을 갖추어야 한다(유정훈, 402).

미국사회과교육학회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① 공동체의 사건과 업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 ② 나 자신과 이웃, 공동체에 관하여 걱정하기
- ③ 개인적 재능과 기능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에 기여하기
- ④ 자발적인 행동
- ⑤ 문제에 관하여 스스로 교육하고 토론에 참여하기
- ⑥ 투표하기
- ⑦ 봉사화 기부를 통해 다른 사람 도와주기

한국사회과 교육학회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핵심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① 개인과 집단의 권리에 대한 존중
- ② 소수의 권리 존중과 다수결의 원칙 수용
- ③ 정보를 얻고 분석하며, 제한되거나 때로 갈등하는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하고, 정치적 과정에 관여할 기회를 학생들에 동등하게 주는 교육에 대한 지지

따라서 민주시민성 내지 시민적 자질은 ‘사회문제에 대한 지적 대처 능력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품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추정훈, 403).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자. ~~각각의 학과에서 시민교육이란 (각과에서 학생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지적 대처 능력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품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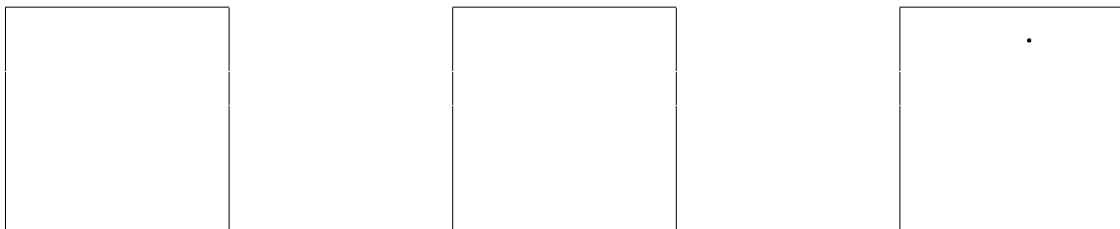
(2) 시민적 자질의 내재화 과정

시민적 자질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수준이나 집단적인 수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절차나 방법을 인식해야 한다(추정훈, 403). 더 나아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자세를 키워야 한다. 이러한 구조와 목표 체계를 갖춘 교과목이 ‘시민교육’이다.

추정훈(2004)은 사회과에서 지식에서 가치에 이르는 시민성교육의 과정을 다음의 5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 1단계 : 사회과학의 지식을 습득하고(지식)
- 2단계 : 이를 상호 관련하여 이미지를 형성한 다음(구조화)
- 3단계 : 구조화된 지식을 통해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등의 지적 기능과 과정에의 참여기능을 훈련하고(참여기능)
- 4단계 : 이의 반복되는 훈련으로 지적 기능을 통해 비판력을, 참여기능을 통해 협동력이라고 하는 인식의 틀(mind)을 형성함으로써(인식의 틀)
- 5단계 : 이를 통해 현실문제에 대처하여 합리적 판단력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품성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가치 태도)이다.

위의 5단계의 내재화과정(시민성교육과정)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지식에서 가치·태도로의 내재화 과정

우리 나라에서는 시민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교과들의 대부분은 위의 그림 중 I 단계에서 머물거나 II 단계를 이루기 위해 교사들 스스로의 교재 재구성에 의해 읽기 자료나 영상 자료 등의 보충자료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열의를 지닌 소수의 교사들이 III 단계의 수업을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사 학습 교육은 현재까지 국민의 자질을 형성하는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2. 한국 학교 시민교육의 현실

(1) 사회과의 분과주의와 입시위주의 수업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민주적 공동체는 모든 개인의 자유 평등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사회이다. 자신과 차이를 가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인간, 자신의 부를 가난하고 주린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인간이 바람직한 시민의 모습일 것이다.

이런 인간들은 타인을 존중하고 대화하는 시민성, 개인의 책임, 자율, 개방적인 마음, 원칙 존중과 타협, 다양성에 대한 관용, 인내, 정열, 관대함, 국가와 그 원칙에 대한 충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근대적 학문체계인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법 등에 의해 분절적으로 조합된 현재의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으로는 복잡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시민성뿐만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시민성도 개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특히 한국처럼 학문의 분과주의를 고집하는 교육적 분위기와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의 여건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 일반선택 과목들의 입시 과목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선택 과목으로서 시민교육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시민윤리, 인간사회와 환경, 생활 경제, 생태와 환경 등의 과목들이 입시 위주의 수업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거나 자율 학습의 시간으로 변용되고 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과목이 어떤 과목에 비해 입시 과목이 되는 윤리와 사상이나 전통 윤리 과목의 보충시간 역할을 한다든지 인간사회와 환경의 과목이 법과 사회나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보충시간 역할을 하고 있다.

(3) 시민교육의 개념 및 교육과정의 미비와 산발적 프로그램 개발

한국의 학교의 시민교육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념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국가 수준에서 개념 정립이나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막연하게나마 사회과의 일반사회 영역 교과목이나 도덕과에서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국가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통일성 없이 자기 사업 영역에 필요한 주제를 선택하여 교재를 만들어 학교 현장에 단순히 전달하거나, 교사모임을 통해 전달하는 수준이다. 이런 자료들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 어렵거니와 적용될 시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예를 연구자가 알고 있는 것들만 정리한다.

- 문화관광부. 2002특성화수련거리5. 『세계시민의식 함양활동』
- 전교조 통일교육위원회·화해평화통일교육전국모임·(사)남북어린이 어깨동무 등의 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민족화해, 평화, 통일교육 연수와 프로그램들
- 전교조 통일교육위원회의 『이 거래 살리는 통일- 화해·평화·통일교육 길잡이』
-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의 환경 교육자료
- 전국사회교사모임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서의 『아름다운 참여 -청소년을 위한 사회참여행동안내서』 / 돌베개, 인권교육 프로그램 『땅콩선생 인권교육하다』 / 우리교육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되거나 개발된 인권교육프로그램
- YMCA의 신용교육프로그램
- 한국투명성기구의 반부패관련 읽기자료- 『흙탕물 일으키는 미꾸라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련 자료
- 한국노동교육원의 교육자료- 『세계화와 일』 (ILO발행)
-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한 통일교육교재
- 법무부 - 아는 만큼 힘이 되는 청소년의 법과 생활

(4) 사회과 교육학자들이 본 시민교육의 현실

2001년 송현정은 '시민사회의 개념 변화와 현대 시민교육의 방향 모색'이

라는 연구에서 현재 학교 교육에서의 시민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송현정, 221).

“국가주도 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민사회 영역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긴장을 유지하는 시민교육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직 시민사회 주도 시민교육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획일화된 학교 제도와 교육과정에 대항하여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연합한 시민사회의 투쟁이 요구된다.”

2004년 추정훈은 ‘민주시민성교육 과정 속에서의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연구에서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과 교육에서의 시민교육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추정훈, 399-400)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문이지만 사회과교육을 통하여 현대 민주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민주 시민적 자질을 양성할 수 있을가에 대하여 반문하게 된다. 사회과교육의 연구자로서 매우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을 때로는 의심하게 된다. 사회과에서 의도하는 인간상(교육과정에 나타난)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2003년 장원순은 ‘한국사회과교육에서 시민의 실천 문제와 과제’라는 연구에서 사회과 교육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장원순, 197-198).

“따라서 사회과교육에서 시민 실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과교육의 외적인 문제인 시민교육의 제도적 미비와 도구화, 시민교육에 대한 인식의 결여와 무관심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과교육 자체의 성격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비판, 재구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사회과교육에서 시민의 실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시민으로서의 행위와 참여를 강조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구조화, 체계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의 실천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과교육은 형식적이고 탈맥락적인 지식과 사고의 교육에서 시민으로서의 행위와 참여중심의 교육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시민으로서의 행위와 참여중심의 교육으로 그 초점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 모경환·이정우(서울대 사대)가 수도권 초·중·고생 460명을 대상으로 행한 “좋은 시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모경환·이정우, 79).

“학생들은 ‘좋은 시민’의 자질로 ‘타인에 대한 배려’, ‘일차집단에서의 헌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권위에의 복종’을 가장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학생들은 비정치적 차원, 소규모 공동체, 개인적 윤리와 관련된 시민성을 정치적 차원, 국가적 측면, ~~국립적 함의와 관련된 차원 등~~ 중시하고 있었다.”

3.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

(1) 7차 교육과정 시민교육관련 과목 시수

< 7차 교육과정 국민공통교육과정상의 시민교육관련 과목 시수 편제표 >

유형	학교급(숫자 = 주당 수업 시간)						
	영역	내용	영역별 시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사회과	역사	국사 세계사	7	1	2	2	2
	일반 사회	정치학 1 법학 1 경제학 1 사회학·문화인류학 1	4 (3.5)		1	1.5 (1.0)	1.5
	지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4 (4.5)	2		0.5 (1.0)	1.5
도덕과	도덕	도덕	6	2	2	1	1
재량 활동		환경보호, 견학, 유적지답사, 봉사,	18	4	4	4	6
			39				

(2) 중학교 2·3학년 사회교과서 일반사회 영역 목차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중학교 사회 2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4	

《목차》

I. 유럽세계의 형성

V. 현대사회와 민주시민

1. 현대사회의 과제

- (1) ㉠ 단행총의보-能思-㉡-思-형작-130-주
㉢1)

II. 서양근대사회의 발전과 변화

III. 아시아사회의 변화와 근대적 성장

IV. 현대세계의 전개

(3) 중학교 2·3학년 사회 교과서 속의 노동 내용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중학교 사회 3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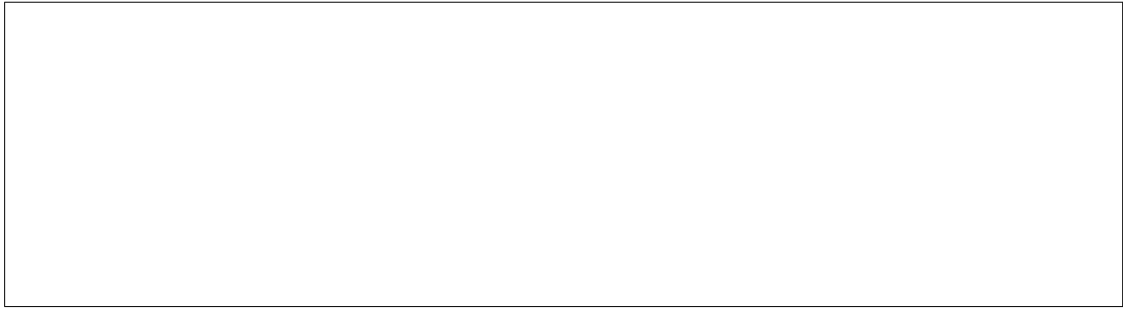
《목차》

<p>I. 민주정치와 시민참여</p> <p>1.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 역할</p> <p>(1) 민주주의의 뜻과 기본 이념</p> <p>(2)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와 의의</p> <p>(3) 시민의 권리와 정치권력의 바람직한 관계</p> <p>2. 민주정치의 기본 제도와 기능</p> <p>(1) 학교와 학급에서의 민주적 생활</p> <p>(2) 민주정치의 기본제도</p> <p>(3) 지방 정책의 결정과 집행 절차</p> <p>3.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p> <p>(1) 다원적 이익과 사회 통합</p> <p>(2) 정치과정과 여러 집단의 기능</p> <p>(3) 시민들의 정치 참여</p> <p>4. 민주정치의 발전 과제</p> <p>(1) 우리 나라의 민주정치발전 과제</p> <p>(2) 정부와 시민의 노력</p> <p>II. 민주시민과 경제생활</p> <p>1. 경제 문제의 합리적 해결</p> <p>(1) 경제문제와 희소성</p> <p>(2)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p> <p>2. 경제체제의 변천과정</p> <p>(1)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출현</p> <p>(2)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p> <p>(3) 시장경제의 장점</p> <p>(4) 미래 경제의 전망</p> <p>3. 민주 시민의 경제적 구실</p> <p>(1) 소비자로서 시민의 역할</p> <p>(2) 근로자, 기업가로서 시민의 역할</p> <p>(3)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경제적 역할</p> <p>III. 시장경제의 이해</p> <p>1. 시장경제의 특성</p> <p>(1) 기계, 기업, 정부의 경제활동</p> <p>(2) 시장 경제의 제도적 원칙</p> <p>2. 가격결정과 변동</p> <p>(1) 가격의 결정</p> <p>(2) 가격의 변동</p> <p>(3) 가격의 기능</p>	<p>3. 시장 경제의 발전 과제</p> <p>(1)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p> <p>(2) 과도한 이익추구의 피해와 공동체 의식의 실현</p> <p>IV. 현대 사회의 변화와 대응</p> <p>1. 현대사회의 변동 특성</p> <p>(1) 현대 사회의 변동 경향</p> <p>(2) 사회변동과 인간 대응 자세</p> <p>(3) 인류의 당면과제와 미래에 대한 비전</p> <p>2. 한국사회의 변동과 발전</p> <p>(1) 광복 이후 한국 사회의 변동 과정</p> <p>(2) 한국사회 당면과제와 미래에 대한 비전</p> <p>3. 현대 사회의 사회문제</p> <p>(1) 사회변동과 사회문제</p> <p>(2) 산업화로 인한 사회문제</p> <p>(3) 정보화로 인한 사회문제</p> <p>(4) 사회문제의 이해와 합리적 해결</p> <p>V. 자원개발과 공업 발달</p> <p>VI. 인구성장과 도시발달</p> <p>VII. 지구촌 사회와 한국</p>
--	--

인간 노동은 인간 실존의 조건 자체이다. 인간은 노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연장시킬 수 있고 동물성과 전혀 다른 인간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은 인간의 자연법적 제1권리인 동시에 인간에 속성이다. 그런데 노동의 이러한 본래적이고 진정한 의미는 상이한 정치적 경제적 제도 속에서 상실되거나 왜곡되어 왔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노동 내용에 대해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과 교과서에 노동교육은 없다'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 다음은 '중학교 사회 2' 교과서(중앙교육)에서 '노동'이나 '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내용 부분이다.

다음은 '중학교 사회 3' 교과서(중앙교육)에서 '노동', '노사갈등'이나 '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Ⅲ. 영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1. 영국 새 교육과정과 시민교육의 목표

(1) 영국 새 교육과정

영국은 사회과라는 교과가 존재하지 않고, 지리, 역사, 시민 교과가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된다. 영국의 교과목 중에서 우리나라 일반사회 교육 내용의 성격과 가장 가까운 것이 시민교육과정이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역사와 지리 과목만으로는 복잡해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시민을 육성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이 1990년대 초부터 제기되어 10여년 간의 논란 끝에 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시민교육을 도입하여 2002년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표 1>과 같이 새 국가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교과에서 종전의 교과에 '시민교육(Citizenship)'이 추가되어 총 12개로 늘어난 점이다.(이현경, 97참조).

이러한 시민교육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key stage 3-4의 필수 과목으로 편제되어 있다. 시민교육 과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종교적 쟁점과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며, 그들의 공동체 내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육성에 그 목적이 있다.(최석진 외, 136)

<표 1> 영국의 새 국가 교육과정(NC)

자료: National Curriculum(2002a).

◎는 2000년 8월부터 △2001년 8월부터 ○2002년 8월부터 적용됨.

시민교육은 2000년 8월부터 개정되어 실시되는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핵심 단계 1-2에서 비법정교과로 개인·사회 건강교육(PSHE)과 시민교육의 일부가 되었다. 또 2002년 8월부터 핵심단계 3-4의 학생들에게는 시민교육이 정식 국가 교육과정 교과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시민교육 실시의 초기 단계이므로 학습 프로그램이 유연하게 제시되어 학교별로 다른 교과와 연관지어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기획하도록 허용하고 있다.(이현경, 102)

(2) 영국 학교 시민교육 목표

국가 교육과정 전체에 걸쳐 시민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이현경, 102)

- ①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 ② 중요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토론하며,
- ③ 사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 ④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핵심단계별로 나누어 상술한 것은 <표 2>와 같다.(최석진 외, 136)

<표 2> 영국의 핵심단계(key stage)별 시민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표 3> 영국의 key stage 3의 시민교육 내용 체계

앞에서 본 시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QCA/DfES에서 개설한 홈페이지인 시민교육 학습방안(Schemes of work)에서는 각 핵심단계별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원의 사례(exemplar teaching units)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음의 <표 3>, <표 4>, <표 5>와 같다¹⁾ (이현경, 104-106참조)

<표 3> 핵심단계(key stage) 1-2의 시민교육의 단원의 사례

자료: [www.standards.dfes.gov.uk/schemes2/ks1-citizenship/...](http://www.standards.dfes.gov.uk/schemes2/ks1-citizenship/)

1) 시민교육 학습방안(Schemes of work) 홈페이지에서 각 단원의 제목을 클릭하면 단원별로 특징, 학습 준수사항, 기대효과, 학습 목표, 교수 내용, 관련교과와의 연계 등에 대한 상세한 방안을 파악할 수 있다.

유럽과 한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비교

<표 5> 핵심단계(key stage) 4의 시민교육의 단원의 사례

			노동이란 무엇인가? 노동에서의 권리와 책임은 무엇인가? 마무리와 미래 학습 계획 수립

자료: QCA/DfES(2002c). * 수업주제는 필자의 관심 영역만을 대상으로 추가로 번역하였다.

2. 시민교육 교수 내용 사례

앞의 교육과정 내용표 중에서 key stage 4의 '10단원: 노동세계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통해 영국 시민교육 교과에서 어떻게 노동교육에 접근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이현경, 107-111참조).

1과: 노동이란 무엇인가?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의 여러 형태(유급 노동/무급 노동) · 탐구 과제: 질문을 만들고 면담을 하여 노동의 여러 형태 및 노동세계의 변화 방식에 대해 탐색 · 탐구 결과를 발표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기록
가능한 학습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짝을 이루어 학생 자신의 현재 역할들에 대해 검토하여(학생이자, 아들 또는 딸, 근로자, 부모 등) 학급 전체에서 취합함. 자신들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 노동을 정리함.(학교 노동, 가사 노동, 신문 배달, 아이 및 친지나 이웃 돌보기) ② 그룹을 나누어 학교, 집, 지역 사회의 성인을 대상으로 면담할 질문지 작성.(노동 형태, 장소, 구직 위한 이사 및 재훈련 경험, 노동생활의 변화 여부 등) ③ 자신들의 연구 결과와 인터넷, 신문, 다른 매체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의 활동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의 범주를 정리(고용, 자영업, 구직 활동, 봉사 활동, 가사 노동 등)하고, 다른 역할의 경제 사회적 기여도를 검토함. - 노동 생활의 변화 및 동향, 자신들의 결론을 제시.(주당 노동시간 감소, 서비스 산업의 성장, ICT 혁명, 이주 노동자 등) - 이들이 자신들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 ④ 각 그룹의 학생들은 신문에서 노동관련 기사를 모음. 여러 신문들이 어떻게 노동세계를 그리는지 알아봄. 신문에서 영국의 다양한 산업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봄. ⑤ 각 그룹은 연구결과를 보고서나 ICT를 이용한 자료로 만들어 발표함.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주민을 위해 게시물 작성. ⑥ 연구 결과 각자의 시민교육 포트폴리오에 활용함.
학생들의 성취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들의 다양한 역할이 유급 및 '무급' 노동의 포함함을 이해함. · 노동세계의 급격한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인식함. ·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자기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함. · 노동 및

2과: 노동에서의 권리와 책임은 무엇인가?	
<p>학습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이 어떻게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을 보호하는가. · 시간제 노동을 하는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 · 근로자를 위해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곳에 대한 정보. · 작업장 분쟁을 다루는 전략에 대해.
<p>가능 한 학습 활동</p>	<p>① 네 그룹으로 나뉘어 다음 중 하나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함.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책임, 사용자의 권리와 책임 등)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다른 그룹과 비교.</p> <p>② 시간제 노동을 하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고용 권리 및 책임에 대해 토론함. 학급 전체가 고용 권리에 관한 검토목록(checklist)을 만들어 봄. 특히 청소년에 관련된 고용 법률에 관한 정보를 주고, 노동 종류별 적법한 노동 연령에 대해 토론하도록 함.</p> <p>③ 전문가(지역 근로자, 인적자원 전문가, 산업안전 상담가 등)의 방문을 통해, 직업 서술 및 계약에서 권리와 책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들이 고용, 산업 안전, 기회 균등, 고용 보호 관련법에서 어떻게 보호되는지 파악함.</p> <p>④ 사례연구를 통해 다음과 관련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을 파악함.(기회 균등의 문제/ 산업 안전과 건강 문제/ 상충하는 법률(시민법과 형법)들/ 정보 제공, 지원 및 상담의 기구들/ 직원협의회(staff association)와 노동조합의 역할)</p>
<p>학생 들의 성취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고용법을 포함한 시민법과 형법에 대한 이해. · 작업장에서 기회 평등에 대한 이해를 드러냄. · 노동 문제에 대해 지원과 상담을 받는 방식을 알게 됨. · 직원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이해.
<p>주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 중의 시간제근로 학생들을 위한 새 ‘유럽 지침’이 있음. EU 청소년 노동자규정 94/33에 의해, 16세 이하 학생들은 휴일 및 병가의 대상이 됨. · 전문가들의 방문은 방과 후 오후 시간이 좋음. · TUC 정보 제공(보다 나은 노동의 길)의 사례 연구 및 각종 활동들이 활용될 수 있음.

<이어지는 활동>

유럽과 한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비교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와 책임 관련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역할극을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결정함. ·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라는 점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가능한 학습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례연구를 이용하여, 노동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탐구하는 역할극을 함.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지 아닌지, 합리적인지 아닌지 검토하고,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서술함. ②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는 점이 자신들이 방문한 작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지역 노동자와 면담 가능) ③ 노동생활에 대한 정부의 영향과, 유럽 연합 의회의 결정이 영국의 노동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대해서 탐구. ④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 일할 기회를 자세히 조사하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파악함. ⑤ 작업장 방문 및 노동경험 기간 동안 다음을 조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 및 책임이 어떻게 정의되는가 - 노동력/작업장의 포트폴리오(시간제 근로자수, 부대 시설, 연령별 종사자, 노동력 이동 등) - 노동조합의 역할과 노사관계 운영 방식 - 기회 평등(인종 및 성차별 문제)이 어떻게 보호되는가, 이를 침해하면 발생하는 문제
학생들의 성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평등과 고정관념에 맞설 전략 및 자신감 개발. · 다른 사람의 경험을 활용하여 유사상황에 자신의 대비 고려. · 유럽 회원국으로서 영국이 받는 영향 파악. · 다른 유럽 국가에서 일하는 것의 장점과 기회에 대해 서술함.
주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극은 논쟁의 방식을 취할 수 있음. 역할극 [redacted] 상황에 자신 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 · 부모 등이 다른 유럽 국가에서 일한 직접 경험 제시.

3과: 마무리와 미래 학습 계획 수립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들의 성취에 대한 검토 및 요약 · 16세 이후 자신들의 역할과 권리, 책임에 대해, 그리고 학습 요구 및 활용가능한 학습 기회에 대해
가능한 학습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생들은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활동/성취내용의 사례를 선택함. 미래 직업 및 인생 계획과 관련한 목표들을 도출함. ② 이 과에서 학생들의 4 단계 성취 결과 전반을 검토할 수 있음. 자신들이 능동적인 시민이 되는데 도움이 된 지식, 기술, 이해의 내용을 파악함. 이때 자신들이 16세 이후에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소비자, 가족 구성원, 평생학습자, 납세자, 투표인, 근로자로서 직면하게 될 역할과 권리, 책임에 대해 숙고함. ③ 핵심단계3-4의 학습 내용을 16세 이후의 실천과 접목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능동적인 시민으로 계속 학습을 해나갈 다양한 기회를 파악함.
학생들의 성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 결과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미래 진로 및 인생 계획과 관련된 목표들을 개발함. · 핵심단계 4에서의 성취 내용을 검토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함. · 미래 학습 요구와 기회를 파악함.
주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과는 잠재적으로 16세 이후 시민교육 추구에 도움이 됨. · 16세 이후의 개발 프로젝트 중의 하나에 참여하거나, 해 온 누군가가 학생들에게 이에 대해 [redacted] 줄 수 있음. 학습과 기술개발청(LSDA)에서 미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IV. 프랑스 학교 시민교육

1. 학교의 '시민교육' 교과목 설치 배경과 내용

프랑스에서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지적되어 왔다(윤기석, 433).

-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치, 사회제도 기능에 대한 불신 증가
- 실업문제와 같은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에 방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에 대한 불신 증가
- 정치이념으로서의 이상주의 상실
- 도시교외 문제, 도시범죄, 폭력, 마약, 등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민권의 위협
- 여론조사, TV 등과 같은 언론매체를 통해 상실되는 시민의식의 결여문제. 즉 일방적인 정치적 담론에 의해 의식이 길들여짐으로써 상실되는 시민의 비판의식 결여로 인한 진정한 시민의식 상실
- 정치권에 대한 냉소주의 팽배
- 정치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각종 선거에서 나타나는 유권자의 기권을 증가에 따른 참여민주정신 감소

(1) 중학교 시민교육 교과목 설치배경과 그 내용

중학교 과정에서 시민교육은 인문과학 과목에 역사, 지리 등과 같은 과목과 더불어 교육되어 왔다. 그러나 1985년부터 시민교육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1985년 내무부장관이었던 장피에르 슈벤느망(Jean-Pierre Chevenement)은 시민교육이 인문과학 과목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교육시켜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 1989년 **작크 랑(Jack Lang) 교육부 장관은 최초로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한다.** 이 법의 근본취지는 법의 제1조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개별의 시민이 시민권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받을 권리를 의무화 시키는 것”**이었다.

시민교육을 별도의 과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은 그 후 계속 진행되었다. 프랑수아 바이루 교육부 장관은 중학교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프랑스어의 정확한 사용법, 시민교육의 필요성 등을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클로드 알레그르 장관시기에는 시민교육이 중학교 교과과정
 정에 공식적으로 설치되는 보다 구체적인 조치들이 단행되었다. 즉 “21세기
 를 위한 고등교육”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시민교육 프로그램
 은 정규교과과정으로 설치해야 하고 고등학교 졸업시험 과목의 하나로
 포함되는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정리하면 1988년과 1993년과 같은 교육 개혁과 개혁 관련 법안, 교육부의
 관심이 일련의 입법과정을 거치게 하여 결국 1995년에 이르러 중등교육에
 서 시민교육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안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윤기석,
 2004, 438-439참조)

프랑스 중학교에서 우리나라 일반사회 영역과 유사한 교과인 ‘시민교육’
 교과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3-4시간씩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 필수교과이
 다. 중학교 시민교육 교과 내용 체계는 <표 6>과 같다.(신선미, 207-209참
 조 재구성)

<표 6> 프랑스 중학교 ‘시민교육’ 교육과정 상의 내용 체계표

1	적응과정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과 규칙들 인간의 권리와 의무 생활기반과 환경에 대한 책임	- 중학교 생활교육 - 교육의 평등성교육 -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 - 학생과 시민권에 대한 교육 - 사회생활, 환경, 유적에 대한 책임성 교육
2	집중적 교육과정	평등 연대성 안전	- 법 앞의 평등 - 인종차별의 문제성교육 - 인간의 존엄성교육 - 연대의식에 대한 교육 - 연대의식 제도화에 대한 교육 - 일상생활과 중학교 생활에 대한 교육 - 위기 상황 대처에 대한 교육
3		자유와 권리 프랑스 법원 인권과 유럽	- 개인적 자유와 집단적 자유에 대한 교육 - 성격이 다른 권리에 대한 교육 - 정보활용에 대한 교육 - 정의의 원칙, 정의를 호소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교육 - 유럽의 시민권에 대한 교육
4	방향설정	시민, 공화국, 민주주의 공화국 권력의 조직 정치적 사회적 시민권 민주주의 토론 국방과 평화	- 자유, 평등, 정의, 공화국 - 통치권 - 세계체제론, 참여민주주의 - 일반적 이해(利害) - 안전, 책임감, 윤리 - 평화와 전쟁

(2) 고등학교 '시민-법률-사회교육' 교과목 설치 배경과 그 내용

일반계열 고등학교에서는 3년간 의무공동교과의 하나로 '시민-법률-사회교육'을 가르치며, 경제사회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전공필수교과로 '경제사회학'을 가르친다.

고등학교 시민교육은 2002년 8월 22일 교육부장관령에 의해 제정된 '사회·법·시민교육' 프로그램이 핵심을 이룬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과 관련하여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모두 적용하기로 결정된 이 혁신프로그램은 2000-2001학기부터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교육 혁신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이 법령이 제정되었던 배경은 고등학교 재학생 중 대다수가 성년(18세)에 달하고 법적인 시민권을 획득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지속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8세부터 획득하게 되는 선거권과 관련하여 올바른 국민주권 행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었던 결과이다. 한편 '사회·법·시민교육'(ECJS) 프로그램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였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참여정신을 강조하는 일선 교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시민의식은 저절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이를테면 "각각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은 사회의 문제에 개입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지적인 의식과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논리적인 사고체계, 표현력, 건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교육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중등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이 이행되고 있으므로 교육의 지속성 차원에서도 고등교육에서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설치의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 (사회·법·시민교육(민교육) 프로그램은 사회 실습교육 프로그램처럼 수행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에서 수행되는 학습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토대로 실천해 나가도록 사·학연 공동교육프로그램의 성격이라고 하겠다.(윤기석, 441-442)

고등학교의 교과별 교육과정은 각 학년별로 다루어야 할 주제와 핵심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민-법률-사회교육' 교과목의 경우에 다루어야 할 주제와 핵심개념은 <표 7>과 같다.(신선미, 210참조)

<표 7> 일반계 고등학교 '시민-법률-사회교육' 교과목의 학습주제와 핵심 개념

	학습주제	핵심개념
1학년	시민권과 예의규범 시민권과 통합 시민권과 노동 시민권과 가족관계의 전환	예의규범 통합 국적 권리, 인권과 시민권 민법상 권리와 정치적 권리 사회적 경제적 권리
2학년	시민권의 행사, 정치권력의 대표제과 정당성 시민권의 행사, 정치참여의 형태와 집단적 행위의 형태 시민권의 행사, 공화제와 특색의 고수 시민권의 행사와 시민의 의무	권력, 대표제 정당성 권리의 상태 공화국 민주주의 국방
3학년	시민권과 과학기술의 발전 시민권과 정의-평등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 시민권과 유럽연합의 건설 시민권과 세계화의 형태	자유, 평등 통치권 정의 일반적 이해(利害) 안전, 책임감, 윤리

2. 프랑스 '시민교육' 교과서 목차 내용

여기에서는 신선미(2003)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교과서를 대상으로 목차를 번역하였다. 앞에서 언급된 교육과정 상의 주제들이 교과서에 어떤 목차로 구현되는지가 사회과 교사의 최대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1) 중학교 2학년 '시민교육(Education civique)' 교과서 목차2)

사가 번역하였다.

시민-법률-사회교육'교과서의 목차는 공항고 주영미 교

(2) 중학교 3학년 시민교육 교과서 목차

(3) 중학교 4학년 시민교육 교과서 목차

(4) 고등학교 1학년 '시민-법률-사회교육' 교과서 목차

3. 프랑스 교과서 내용의 실제

(1) 프랑스 중학교 3학년 '시민교육' 교과서의 노동교육 내용

Natan출판사의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는 노동관련 내용이 제1부 자유와 권리라는 대단원 아래 '사회적 권리'라는 장에서 기술되고 있다. 먼저 도입부에서는 프랑스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노동의 문제와 그 권리에 대한 기술을 하며, '1절, 노동 모두의 권리인가'에서는 프랑스에서 주요 노동조건 변화, 노동에서의 소외와 차별을 다루고 있고, '2절, 사회진출, 획득하여야 할 새로운 권리들'에서는 청년층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 실업자들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제1부 자유와 권리
제2장 사회적 권리들

<도입부> Moulinex 일자리를 위한 싸움
-o-o-o- 유럽 제일의 소형 가전 회사가 된 한 가족 회사 -o-o-o-

<p>1932년, Jean Mantelet은 야채 가는 기계를 발명했다. 그는 Bagnolet에 첫 번째 공장을 세웠다. 1985년 : Moulinex 유럽 제1호 Moulinex는 노르망디 지역에 12개의 공장을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소형 가전품을 생산했다. 1990-1994년 : 세계적 발전 이 회사는 점점 유럽의 경쟁사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스위스의 Swan, 이탈리아의 Girimi, 독일의 Krups, 그밖에 멕시코의 Vistar 등이 그들이다. 미국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은 멕시코에서 만들어졌다. 1992년부터 이 회사는 돈을 잃게 되었다</p>	<p>점선 그래프</p> <hr/> <p>막대 그래프</p> <hr/> <p>(점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로 된 매출액과 순이익의 변화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p>
---	--

1. 창사 이후 1990년대 초까지 Moulinex사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2. 몇 연도부터 이 회사가 적자로 돌아섰습니까?
-o-o-o- 전 세계에서 4개 중 한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o-o-o-
1996년 6월 - 2,600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그중 2,100개가 프랑스 내의 일자리이며, 그중 1,800개가 서부지역의 것이다. Moulinex를 살리기 위해서, Pierre Blayau 사장이 취한 계획은 매우 엄격했다. Mamers 공장과 Argentan 공장이 폐쇄되었다.

<p>노동자들: “우리가 Moulinex의 부를 만들었다” “Blayau씨,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Moulinex의 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우리 이름을 카드에서 연필로 그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20년,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Moulinex에 주었습니다.”</p> <p>사장 : “혼돈은 이제 끝났다” “지금부터 3년 안에 90억 프랑의 매출을 올려야 하고, 생산을 재구조화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프랑스에서 만들어야하고, 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겨냥한 생산을 현지로 옮겨야 합니다. 멕시코 공장의 확대는 이미 진행중에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사를 현대화시키기 위하여 사장이 설정한 목표들은 무엇입니까? 2. 그의 계획이 프랑스 노동자들에게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3. 사장의 계획 발표에 대하여 노동자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4.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논리는 무엇입니까?
---	--

-o-o-o- 파업과 시위가 연달아 일어났다 -o-o-o-

<p>1996년 6월 1만 여명이 Mamers에서 411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장의 폐쇄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 노동자가 땅에 드러눕자 411명이 모두 드러누었다. 411개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그 지역 일자리의 20%를 없애는 것이다. (L’humanite지, 1996년 6월 27일자)</p>	<p>411명의 노동자들이 드러누어 시위를 벌이는 모습의 사진</p>
<p>1996년 9월 프랑스 민주노동동맹(CFDT)은 어제, 멕시코에서 시간당 14프랑에 고용한다는 Moulinex 경영진의 발언을 고발하였다.(L’humanite지, 1996년 9월 19일자)</p>	

1. 노동자들은 회사의 계획에 대한 그들의 반대를 어떻게 시위했습니까?
2.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Mamers지역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3. 이 회사는 전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o-o-o- 긴 협상 결과 해고를 피할 수 있었다 -o-o-o-

1996년 10월

노동조합과 경영진 간에 매우 많은 회합이 열렸다. 중앙회사위원회(Comite central d’entreprise)에 대표자가 참여한 노조는 CGT, CFDT, FO, CGC, CFTC등의 전국노조와 개별노조 SYDIS이다.

1997년 1월 : 기업주-노조 간 협정으로 1,468명의 해고를 막다

- Mamers와 Argentan의 공장 폐쇄 - 56세 이상 718명 명퇴
- 노동시간 축소 및 조정 : 주당 노동시간 39시간에서 33시간 15분으로 축소, 임금은 97.2%까지 지불. 노동시간, 특히, 공휴일 노동시간은 수요일에 따라 달라질 것임.
- Moulinex 노동자 중 일부를 지역내 다른 회사로 전직, 이를 위해 1명당

4만 프랑을 채용기업에 보조.

1998년 1월 : 새로운 공장 예정

구조조정 계획 발표 1년 만에, 회사의 재건이 잘 되고 있다. Moulinex는 Orne 지역에 새로운 공장 건설을 생각하고 있다.

1. 경영진과의 대화에서 누가 노동자들을 대표하였습니까?
2. 어떻게 Moulinex에서 결국 해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까?

열린 토론

- o 현대 경제의 요구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 o 명퇴, 노동시간 단축 등의 개혁정책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1. 노동, 모두의 권리인가?

1. 노동자들의 권리

- 19세기 산업혁명으로 노동자의 수가 매우 증가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법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고 매우 어려운 조건 속에 살았다.
- 점차로 그들의 노동조건이 법으로 제정되었다 : 1864년에는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1884년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다.
- 13세 이하 어린이의 노동은 1892년부터 금지되었다(자료 1). 노동시간도 법규화되었다(자료2).
- 그 후, 노동법이 발전하게 되었다.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 휴가 제도가 생겼고,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규칙이 생겼으며, 최저임금이 정해졌고, 노동자들의 회사위원회(Comité d'entreprise) 참여가 조직화되었다.

2. 노동할 권리는 오늘날 어디까지 왔나?

- 1946년 헌법은 모든 사람은 일할 의무와 일자리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사실, 20세기말 경제적 조건들은 누구에게나 보수를 지급받는 일을 획득할 수 있게 허락하지 않는다. 기업의 재조직은 종종 일자리를 없애며, 실업은 오늘날 경제활동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자료3)
- 청소년들의 직업교육은 그들이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도록 하는데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업은 특히 자격조건이 있는 사람들에겐 생생하기 때문이다.
- 남여간의 평등원칙 또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성적 차별은 여전히 빈번하

다(자료 4)

용어
회사위원회 : 회사의 경영진과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
차별 : 동일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다루게 취급하는 것
파업 :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을 중단하는 것
경제활동인구 :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가진 사람과 그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전체
노동조합 : 공동의 직업적 이해를 방어할 목적을 가진 단체

자료1. 허용될 수 없는 어린이 노동

<p>사진 1. 1890년경 나사못 제조 공장 안에서 노동자들이 기계를 앞에 두고 찍은 기념사진.- 사진 속에는 어린이 노동자들도 섞여 있다.</p>	<p>사진 2. 1995년 스코틀랜드에서 찍은 사진으로 신문 판매를 하고 있는 어린이 사진 - (사진들 사이에 다음의 작은 인용문이 있다.) “회원국은 어린이들이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1989년 32조.</p>
--	---

1. 이 두 사진 간에는 얼마 간의 시간적 격차가 있는가?
두 사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2. 어린이의 노동을 봐주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협약에 의해 규칙을 위반하게 되는가?
그런 나라들은 어떤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는가?

자료 2. 전에는 일을 더 많이 했다

<p>1848년부터 2000년까지 주당 노동시간의 변화를 막대 그래프로 제시 - 주당 노동시간은 1848년 84시간에서, 1919년 48시간, 1936년 40시간, 1982년 39시간, 2000년 35시간으로 줄어들었다.</p>	<p>1841년에서 1982년까지 어린이, 성인남자와 여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을 사람의 키를 기준으로 삼아 그 변화를 막대그래프로 제시 - 1841년에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성인남자의 경우 14시간, 12-16세 어린이의 경우 12시간, 8-12세 어린이의 경우 8시간이다. 이것이 1892년에는 성인남자 12시간, 성인여자와 16-18세 남자 11시간이 되었으며, 1919년에는 주당 6일 하루 8시간으로, 1936년에는 주당 5일 하루 8시간으로, 1982년에는 주당 5일 하루 7시간 40분으로 되었다.</p>
--	--

1. 1841년에서 1982년까지 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의 감소는 어떻습니까?
그 기간 동안 주당 근무일수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2. 그래서 결국 주당 노동시간의 감소는 어떻습니까?
3. 프랑스에서 어린이의 노동시간은 어떤 단계들을 거쳐 오늘날과 같이 제한

되었습니다.

자료 3. 노동할 권리는 모든 이들에게 보장되지 않고 있다

<p>선그래프</p> <p>1970년 이후 실업자 수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1970년에 50만의 실업자와 실업률 2.5%였던 것이 1997년에는 실업자수가 3백만을 넘고, 실업률은 12.6%이다.</p>	<p>막대그래프</p> <p>1997년도의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3.4%, 미국은 4.8%, 영국은 5%인데 비하여, 프랑스는 12.2% 독일은 12.6%이다.</p>
---	---

1. 언제부터 프랑스에서 실업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까?
2. 1997년 현재 실업은 경제활동인구 중 얼마나 됩니까?
3. 다른 선진국들에서 실업률은 어떠합니까?

자료 4 노동의 세계는 성적 세계?

<p>간부가 여성과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삽화</p> <p>여성이 “저는 경영학 학사, 독일어 학위, 영어학 학사, 일본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커피 한잔 준비해!”라고</p>	<p>각 분야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p> <p>경제활동인구..... 44.1%</p> <p>자유직업 종사자 33%</p> <p>공공분야 관리직..... 26.6%</p> <p>개인 기업체 간부12.9%</p> <p>10인 이상 사업체 경영자.13.9%</p>
--	---

1. Plantu의 삽화는 성적이가 반 성적이인가? 여러분의 답을 정당화해보시오.
2. 모든 형태의 일자리에서 여성이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에 그 이유는 ?

2. 사회진출, 획득하여야 할 새로운 권리들

사회 진출을 촉진하는 오늘날의 새로운 권리들은 무엇입니까?
어째서 사회 진출에 집단적 책임이 있습니까?

1. 모든 이들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권리들

- 각 개인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며 살고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교육을 보장하며 적절한 존재 수단을 제공한다.
- 교육은 오늘날 16세까지 의무이며, 각 개인은 또한 시민들의 평등을 추구

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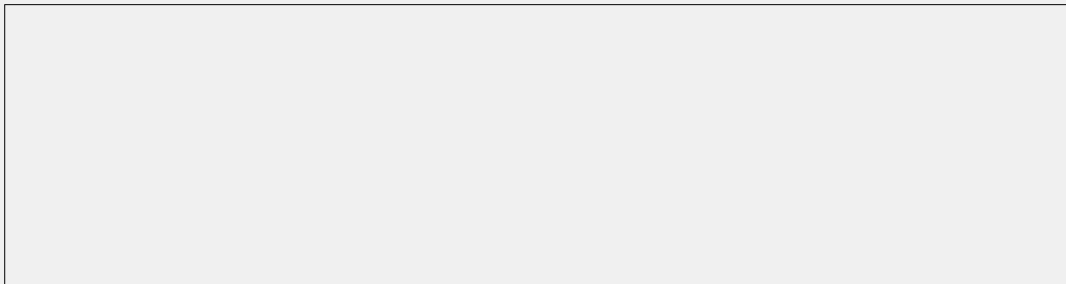
■ 의료보험체계의 성립 및 공중 건강 정책으로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 또한 발전되었다.

■ 그러나 공동체(지역사회를 말함, 역자주)에 요구되는 재정적 노력은 매우 무겁다. 그것은 사회보장 분담금, 개인과 기업체가 지불한 세금으로 채워진다(자료 2)

2. 사회진출 : 집단적 책임

■ 실업과 가난의 증가에 따라 1980년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편입임금(RMI)(자료3), 주거권(자료4)과 같은 새로운 권리들이 인정되었다.

■ “구세주 국가”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 새로운 권리들의 보장을 위하여 요구되는 재정은 장기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재정과 관련된 가지고 사회적 예산 또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자료 2).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움을 받지 않고 살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또한 각 개인의 책임이다.



자료 1. 보통 학생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청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교육

<p>사진</p> <p>Rennes라는 도시의 Biquenais 중학교의 3학년 반 학생들 사진이 실려있다. 한 어른이 청각장애자인 학생에게 수화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p>	<p>국가는 아동과 성인에게 평등하게 직업교육과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한다. 모든 학교급에서 무상 및 비종교적 공교육의 조직은 국가의 의무이다.</p> <p>1946년 헌법 전문 13조</p>
---	---

1. 이 학급에서 교사를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 어떤 점에서 이 학급은 청각장애자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도와줍니까?
3. 프랑스에서 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자료 2. 사회정책의 비용

사회정책 예산(세입, 세출)과 그것을 제외한 전체 국가예산(세입, 세출)의 내용막대그래프로 제시되어 있다. 국가예산의 세출을 보면 사회정책 예산을 제외한 전체가 16,410억 프랑이고 그중 공무원 인건비가 7,060억 프랑, 교육예산이 2,540억 프랑, 기타가 6,810억 프랑이다. 사회정책 예산의 지출 내역을 보면 전체가 12,300억 프랑이고 그중 질병을 위한 지출이 5,750억 프랑, 노인을 위한 지출이 3,700억 프랑, 가족을 위한 지출이 2,430억 프랑, 기타가 440억 프랑이다.

1. 국가예산은 어떻게 충당됩니까?
2. 프랑스의 사회정책 예산은 어떻게 충당됩니까?
3. 여러분이 확인한 대로 사회정책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시오.
4. 어째서 모든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자료 3.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 최저편입입금

<p>“나이, 신체적 정신적 상태, 경제적 상황, 일자리 상황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게된 모든 사람은 사회로부터 적절한 존재 수단을 획득할 권리가 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직업적 사회적 진출은 국가가 필히 해야할 일에 속한다.” 1988년 12월 1일 법 제1조</p>	<p>1991년 이후 최저편입입금 지급 대상자수의 증가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p>
--	---

1. 법에 따르면 누가 최저편입입금을 받게 됩니까?
2. 최저편입입금의 신설을 정당화하고 있는 국가의 필수과제는 무엇입니까?
3. 최근에 최저편입입금을 받는 사람의 수가 어떻게 늘었습니까?

자료 4. 지붕, 그것도 권리다.

<p>시위에 관한 기사 ☞ 이 자료는 집없는 사람들이 지붕을 하나 가지는 것도 권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1997년 10월 27일자 파리 지방지의 집없는 사람들의 시위에 관한 기사 일부가 집없는 사람들 사진과 함께 자료로 제시되었다.</p>	
---	--

1. 어떤 도시에서 집 없는 가족이 36가족입니까?
2. 어떤 권리의 이름으로 이 가족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웠습니까?
3. 누가 그들을 돕습니까?

4. 그들은 어떤 식으로 있을 곳을 마련합니까? 그에 대해 어떻게

■실업자들은 실업수당을 올리고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시민권을 더욱 더 인정받기 위하여 움직인다.

■그들은 국가고용사무소(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센터), 상공고용연합(ASSEDIC), 정당, 프랑스기업주센타(우리나라의 전경련), 시군구청 등의 상징적인 장소들을 점령한다.

1. 1997년 12월과 1998년 1월에 실업자들은 어떤 장소를 점령했습니까?
2. 이 건물들을 포위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자료 2> 실업은 생활을 쏘아 먹는다.

장기 실업은 사람들에게 권리를 제한하게 되며 그들을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들은 정치적 책임을 덜 진다. 장기실업자이 선거자 등록명부에 누락이 가장 많고, 투표 참여율이 가장 낮다. 그들은 사회에서 점점 더 격리될 위험이 있다.

“정육점 주인은 우리를 절대로 보지 않는다. 우린 고기를 살 수단이 없다. 어린이들은 불균형적인 식사를 하고 있다. 나는, 난 몇 개월동안 같은 청바지를 입고 있다. ... 우린 전화도 더 이상 없다. 요금을 더 이상 낼 수 없게 되자 끊어버렸다. 우린 바캉스 가는 적이 없다. (1998년 1월 9일, 르 피가로지에 실린 장기 실업자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증언)

<자료 3> 실업은 격리를 가려온다.

Plantu라는 사람은 1998년 1월 17일에 그린 삽화이다. 최저임금이라고 써 붙인 창구 앞에 누더기를 걸치고 머리가 없는 (정체성 상실을 의미)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다. 그중 하나가 “가장 힘든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이 애매모호한 느낌이라니까!”라고

최저임금이라고 써 붙인 창구 앞에 누더기를 걸치고 머리가 없는(정체성 상실을 의미함) 사람들 6명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의 만화 그림

1. 장기실업의 물질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료 2)
2.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상황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료2)

3. 삽화가 실업자들이 느끼는 정체성 상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료 3)

4. 사회적 정치적 생활에 참여 (예를 들면, 투표, 민회참여 혹은 다른 민회 참여)에 대한 실업자들의 태도는 주로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o-o-o- 통합은 모든 사람의 일이다 -o-o-o-

<자료 4> 부자 나라는 모든 국민을 통합시켜야 한다.

“한편으로...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중 하나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 실업이 5백만명을 직접 간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프랑스가 가난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반대로, 가난한 것은 프랑스가 국민을 일부의 강가에 버려두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영국의 능란한 혹은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정치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챙기고 어짜피 투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처신한다. 프랑스가 이것을 배우지 않으려면, 각각의 집단과 각각의 집단들, 특히 향촌들과 각각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 1998년 1월 13일, 서부 프랑스지, Antoine de Tarle 씀.

<자료 5> 1946년 헌법 전문

“나이, 신체적 정신적 상태,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게된 모든 사람은 사회로부터 적절한 존재 수단을 얻을 권리가 있다.”

<자료 6> 1998년 7월 29일 법

“제1조 - 여러 가지 격리에 대처하는 것은 모든 인간 존재의 평등한 존엄을 존중하고 국가의 공공정책 전체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 중 하나라는 점에서 국가의 막중한 임무이다.”

이 법은 전국에서 모든 국민이 고용, 주거, 건강 보호, 사법, 교육, 훈련, 문화, 가족과 어린이 보호 등 기본적 권리에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보장기구와 사회복지 그리고 의료-사회 기관들은 이 원칙을 실행에 옮기는데 참여하여야 한다. 그들은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인식하고, 예방하며, 제거할 정책을 추진한다.

<자료 7> 1998년 1월 7일, 피리에서 있었던 실업자 시위

안경을 쓰고 털모자를 쓴 여성이 “모든 사람이 사회로부터 적절한 존재수단을 얻을 권리가 있다”라는 헌법 전문의 구절을 겨 쓴 피켓을 들고 시위대 속에 서 있는 사진

2절. 노동법과 노동조합

■ 노동법이란 무엇입니까?

■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 노동법

■ 노동자들은 점진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어려운 투쟁을 통하여, 권리를 얻어냈다. 그것들의 전부가 **노동법**을 구성한다.

■ 고용주와 임금노동자는 공적으로 만든 **공동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적 수준에서, 각 임금노동자는 고용주와 함께 **노동계약**을 체결하며, 노동계약 속에 노동기간, 시간, 자세한 노동조건에 대해 명시한다(자료1)

■ **노동법은 발전한다**: 최대 노동시간, 노동조건, 급여조건은 분야별로 노동조합과 고용자 간에 **협상**의 대상이 된다. 최저임금에 관한 법이라든가, 주당 35시간 근무제 법 등의 **법**은 모든 임금노동자들에게 공통되는 조건들을 수정한다.(자료 2)

2. 노동조합의 역할

■ 노동조합은 각 직업군의 고유한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단체이다. **노조결성의 자유**는 프랑스에서 1884년부터 있어왔고, 1946년 헌법(자료 3)에 의해 재확인 되었다. 각자 누구나 공식적으로 노조에 가입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도 있다.

■ 프랑스에는 5개의 대규모 **연합노조**가 있고, 직업별 노조는 무수히 많은데 거기에는 독립적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의 조합이 포함된다. (자료 4)

■ **노조대표**는 기업체의 노동조합 부문에서 근무하며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주와 대화한다. 만약 그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노동자들도 **파업, 시위**와 같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자료4)

■ 프랑스에서 노동조합에 등록된 임금노동자들은 **9%**로 매우 적으며, 이 비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다.

■ 몇몇 노사분규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이외에, 일시적인 요구사항 “**조정단**”이 있다.

용 어	
노동계약 : 노동자와 고용주가 서로 약속한 것 (노동조건, 급여 등)을 정의하고 서명한 문서	
공동협약 : 같은 직종의 노동조합들과 고용주들이 서명한, 그 직종에 적용되는 특수한 규칙들	
조정단 : 갈등이 발생했을때 한 직종의 노동자들을 모으기 위하여, 노조이외에 일시적으로 구성된 운동체	
노동법 :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문서 전체	
연합노조 : 여러 직종의 노조들이 모여 공통된 이해를 추구하는 노조	
노조 : 직업적 이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	

<자료 1> 노동계약, 상호약속

노동계약서 양식 사진	<p>☐ 양식 내용설명</p> <p>고용주의 성명과 주소 사업체등록번호 피고용자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사회보장번호 상호 약속하는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기간 2. 시범사용기간 (이 기간 동안 서로 만족하는가를 확인하며, 기간이 끝나면 양측모두 아무런 위약금을 치르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주당 노동시간 4. 보수 5. 휴가조건과 수당 <p>계약이 이루어진 곳의 지명과 날자 ‘읽고 서명함’이란 메모 각자 서명</p>
-------------	---

1. 이 계약서를 구성하는 5개 조항 각각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2. 어째서 이 계약서를 상호약속이라고 합니까? 누가 그것을 읽습니까?

<자료2> 노동법은 발전한다.

<p>Plantu가 그린 삽화</p>	<p>☞ 삽화내용 설명</p> <p>“주당 35시간 노동제” 수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라는 제목을 [redacted]의 삽화 하나가 제시되어 있다. 삽화 속에는 [redacted] 참여했던 주요 사회 인사들과 유사한 인상착의 [redacted] 10명이 원탁의자에 빼곡히 앉아서 심각하게 [redacted] 하고 있다. 한 사람은 의심스런 표정으로 옆 [redacted] 보면서 “흠흠... 추가노동 법세가 나..”라고 [redacted] 법안을 추진할 당시 총리인 리오넬 조스팽과 유사하게 생긴 한 사람은 일어나서 “틀을 만드는 법, 일정, 완충기, 발전, 동의, 협상, 실용주의!!!” 등 수 많은 논쟁에서 쓰였던 핵심적인 단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p>
----------------------	---

1. 이 삽화에 있는 대표 인물들은 누구입니까?
2. 총리가 사용한 각각의 용어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3. 이 삽화는 노동시간에 관한 법률을 정하는데 있어서 난관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자료 3>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가장 근본적인 자유
(두 개의 설명자료 제시)

<p>☞ 자료 설명</p> <p>1946년 제정된 헌법 전문이며, 그 내용은 모든 사람은 노조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권리와 이해를 방어할 수 있으며 자기가 선택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임 .</p>	<p>☞ 자료 설명</p> <p>노동법의 한 조항으로 그 내용은 고용주가 채용, 재계약, 직무배치, 계속교육, 승진, 보수, 기타 사회적 지원, 휴가 등의 의사결정에서 노조 가입 여부 혹은 노조활동을 의사결정 조건으로 삼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임.</p>
--	---

1. 프랑스에서 노조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2. 위의 노동법 조항이 노조에 가입된 임금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증명해보시오. 무엇 때문에 이런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자료 4> 노동조합의 다양성
(두개의 자료(a), (b)가 아래와 같이 제시됨)

<p>☞ 자료 설명</p> <p>(a) 분쟁위원회(conseil des prud'hommes) 선거 결과를 나타낸 선 그래프 사진(1979년부터 1997년 까지). 1997년에는 CGT가 33.1%의 표를 얻었고, 그 다음으로 CFDT가 25.3%, FO가 20.6%, CFTC가 7.5%, CFE-CGC가 5.9%의 표를 얻었다는 내용임</p>	<p>☞ 자료 설명</p> <p>(b) 1996년 10월 25일 크레디리요네 은행 노동자들의 시위 모습을 담은 사진 모습. 시위자들은 5개 연합노조의 이름으로 일자를 축소하는데 반대한다는 프랭카드를 들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임</p>
---	---

1. 1997년도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냈던 주요 노조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료 a)
2. 1979년과 1997년에 각 노조가 얻었던 표의 비율을 비교해보시오. 어떤 노조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까?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자료 a)
3. 어떤 노조들이 시위를 합니까? 무슨 이유로 합니까? (자료 b)

모의 중학교 졸업시험 (주제1)

‘실업 및 사회로부터 격리에 대한 대책’

<자료 1> 1998년

“모든 사람은 일할 의무가 있으며 일자리를 얻을 권리가 있다.” (1946년 헌법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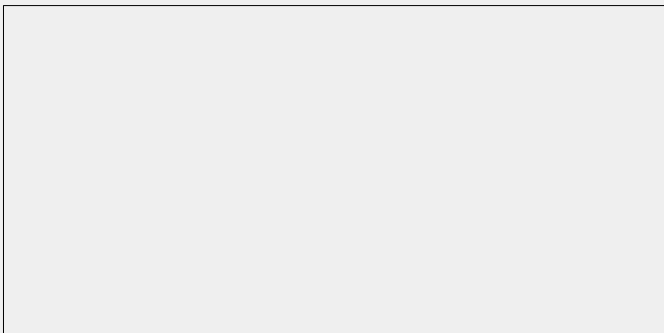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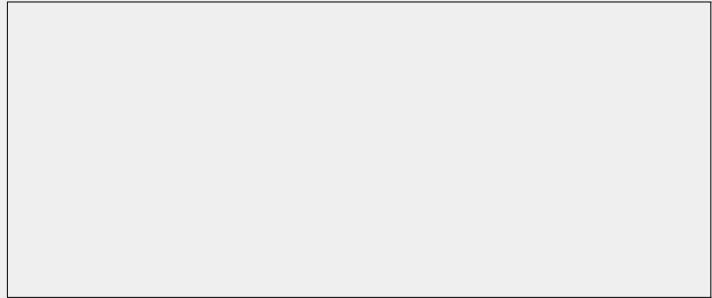
“이 법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서 최소한의 사회진출을 제도화한다.” (최저편입임금 관련 1988년 12월 1일 법)

“16세에서 25세의 모든 실업자와 기타 모든 장기실업자 혹은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들은 교육, 개별 지원, 일자리 소

여기에서는 앞서 소개한 프랑스 Bréal 출판사의 고교 1학년 '시민-법률-사회교육' 교과서 73-82쪽까지의 내용을 소개한다.

p 73

주제 6
급여 생활자들의 집단 표현



일반적인 생각과 관점

A-급여 생활자들의 표현

판단의 기준

- 토론 1 - 프랑스에서 노조는 언제나 민주주의의 중요 당사자인가?
- 토론 2 - <연합> : 시민권의 새로운 표현 형태?

B-분쟁과 단체 협상

판단의 기준

- 토론 3 -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파업권

결산과 평가

p74 몇 가지 일반적인 생각들

- 1. 노조는 가입자들에게만 유용한가? 예 () 아니오()
- 2. 프랑스에서 노조는 거의 영향력이 없다. 예 () 아니오()
- 3. 연합은 노조보다 더 효과적이다. 예 () 아니오()
- 4. 급여 생활자들은 기업에서 잘 대표되지 않는다. 예 () 아니오()
- 5. 공공 분야에서 파업권은 제정되지 않았다. 예 () 아니오()
- 6. 단체협상은 의무가 아니다. 예 () 아니오()

첫 번째 관점들

노조의 힘

일반적인 생각 : 프랑스 노조는 (외국의 노조)보다 약하다. 가입자의 수로는 분명히 그렇다, 그렇지만 영향력 ~~이~~ 증가하는 노조에 더 큰 힘을 주었다. 기업에서 협상은 협상 상대자를 전제로 하는데 노조만이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는 사람을 낼 수 있다. 따라서 강력하고 대~~표~~적인 노조를 가지는 것은 (봉급생활자들의) 이익이다. 봉급자들은 부분적으로는 노조의 파업 명령을 따르고, 선거에서는 큰 연맹을 위해 다수결로 투표한다. 노조화율(15% 이하) 저조의 증명은 잘못된 방법에 기초한다. 사실 직원 100명이하의 중소기업에는 거의 노조원이 없다. 반~~면~~ 공공부문의 서(EDF전기, SNCF철도, RATP교통, ..) 노조 비율은 매우 높다.

프레데릭 툴롱, 사회학과 사회역사학, 파리, PUF, 1996

파업권과 실업

“그들은 파업을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나도 정말 하고 싶어요.” 한 마디로 노동자 연대의 세기는 순식간에 지나갔다. 살기 위해 신문팔이가 된 이 실업자는 그에 대해 길게 이야기 한다. 파업권이 46년 헌법 전문에 들어가고 58년에 재확인되~~고~~ 먼저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다.

샤를르 비얏, 사회적 연결. 96. 2.

단체 협상은 무엇하는 것인가?

산업관계의 중요 부분인 (단체 협상은) 노동권의 원천들 중의 하나이고 분쟁을 극복하는 한 수단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눈에는 사회 평화의 도구이다. 세계대전 후 74년 첫 번째 오일쇼크에 이르기까지 이 도구는 경제발달의 수단들 중 하나였다. 이 “영광의 30년” 동안 생산성 과일의 분배는 성장의 “선

순환"을 보장했다.



p75 6.A 급여 생활자들의 의사표현

노조는 급여 생활자들의 보호를 보장한다.

왕태 루소법으로 1884년 허가된 이래 노조는 공동의 직업적 이익을 표현하고 지키는 단체이다. 노조는 민주주의에서 권력에 맞서는 역할을 한다. 사회의 다른 상대자(기업 경영자, 사장,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들과 여러 단계로 합의에 이르기 위해 협상한다. : 기업의 합의, 직업, 업종간 합의 등. 노조의 대표성은 단체 협상에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인 노조는 공권력의 상담을 받고, 사회기관의 경영에 참여한다.(사회보장과 가족수당 기금, 퇴직연금 기금, 국립상공인 고용협회(Unedic))

급여 생활자 대표가 기업에 조직되었다.

기업에서 개인은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똑같이 권리도 있는데 특히 급여 생활자 대표로 인정된다. 1936년 이래 10인 이상의 기업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되는 종업원대표들은 종업원들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요구를 기업의 장에게 전달한다. 대표들은 또한 노동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다.

1945년 이래 50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서 기업위원회 설치가 의무이다. 노사조조정위원회에 기업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해고, 구조조정) 의무적으로 고지되어야 하고, 이 위원회는 고용, 교육, 근로 시간과 조건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사업을 관리한다.(직업교육, 복귀(식당), 문화 스포츠 활동, 휴가 센터)

종업원은 68년부터 인정된 노동조합부의 부원이 될 수 있다. 82년부터 노조 대표만이 기업에서 봉급에 관한 협상 대상자이다. 노조 대표는 그가 속한 노조 기구에 의해 임명된다.

노조의 위기?

다른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과는 반대로 프랑스에서 노조는 소수의 봉급자만

이 가입하고 가입 숫자도 줄어드는 경향이다. 게다가 직장 선거의 기권은 증가한다. 경제위기와 고용시장의 변화(전통적 노조 분야의 위기, 3차 산업 고용의 확대, 소규모의 발달, 실업의 두려움..)가 다른 곳보다 더 노조의 역할에 영향을 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민은 사회 단결의 유지에 그들의 참여가 없어서는 안된다고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말부터 다른 분야별 요구(생태, 여성, 소비, 대학)가 <연합>이라는 덜 조직되고, 자발적인 그룹에 의해 제기된다.

연표

1884 노동조합 인정, 1945 기업 운영위원회와 사회보장 설립

1946 헌법에서 노동조합의 권리 인정, 1968 기업에 노동조합부 설립

1982 기업에서 노동자의 자유와 직원 대표기관 발전에 관한 오류 법

핵심어

(조합의) 대표성 : 조합원 수, 독립성, 부담금, 경험과 설립 년도에 따라 국가에 의해 부여됨. 대표성으로 단체 협상에 조합의 참여, 인정된 노동조합부의 구성, 1회전 대표 선출에 독점권, 기업 운영위원회에 대표 등이 가능함

단체 협상 : 대체로 국가 차원에서 노조 대표와 사용자들 사이에 합의를 추구

노동 감독기관 : 국가 대신 노동법과 단체 협약의 적용을 감독함

기업 운영위원회 : 사장, 선출된 종업원대표(1회전은 조합 연기명으로, 2회전은 자유 투표)과 발언권만을 가진 노조 대표로 구성됨

연합 : 일시적으로 노조의 전통적 역할을 하는 자발적 운동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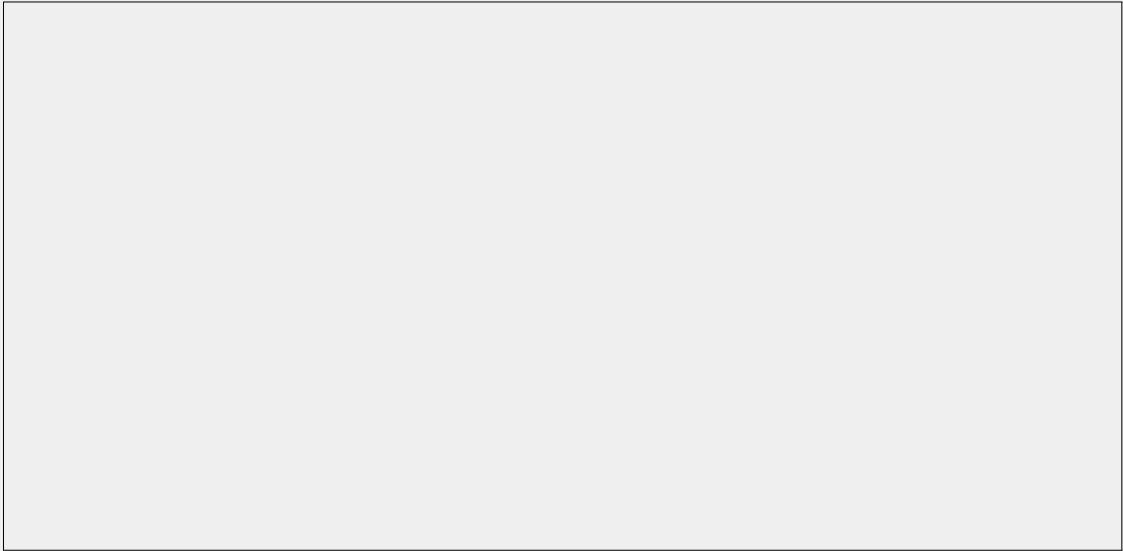
주요 노조 기구

- 노동 총연맹(CGT)1895년 창립
- 프랑스 기독교 노동자 총연맹(CFTC) 1919년 창립
- 노동자의 힘(FO) 노동 총연맹에서 갈라져 1947년 탄생
- 프랑스 민주주의 노동 총연맹(CFDT) 기독교 노동자연맹에서 갈라져 1964년 탄생
- 관리자 총연맹(CGC) 1944년 탄생

p76 토론 1 - 프랑스 노조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중요 당사자인가?

프랑스에서 노조의 약화문제는 종종 모순적 관계에서 제기된다.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해도 노조는 경제 사회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자료 1. 몇몇 나라의 조합원 수와 조합 비율



BIT(국제 노동사무소) 노동, 직업관계, 민주주의와 사회 단결, 경제문제에서 2556호, 8. 1.

자료 2 노조의 낮은 가입

스웨덴에서 노조는 실업기금을 관리한다. 정부에서 받는 최저 활동 수당을 보완하는 실업수당으로 조합 가입자에게만 주어진다. 벨기에에서는 가입자들을 위해 퇴직 보완제도를 운영한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노조의 가입은 권리가 따른다. 프랑스 노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 사용자와 개인적 분쟁이 있는 봉급생활자는 종업원대표의 보호를 받는다. 종업원대표는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봉급생활자를 돕는다. 노조 대표는 영국이나 독일에서와 같이 관계 노동자의 가입에 자발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가입에는 어떤 개인적 이익도 없다. 연대를 표현하려는, 봉급생활자가 믿는 것을 위해 싸우려는, 헌신하려는 의지만 필요하다. 이것이 가입자가 그렇게 적은 이유이다.

베르나르 브뤼, 고용의 새로운 습관, 파리, nil 편집부, 1996

자료 3 프랑스 노동조합의 약화

고용의 변화는 전통적 모집 자원을 고갈시키고 노조화하기 어려운 범주의

인원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노동활동인구에서 노동자의 무게(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가 줄어드는 반(反)가장(反加長)과(反加長) 중(中)가(加)입(入)과(加)입(入)이(入)가(加)입(入) 노동자가 큰 중요성을 차지한다. 실업이 특히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노동인구에 타격을 주(主)가(加)입(入)과(加)입(入)이(入)가(加)입(入)과(加)입(入)의 다른 결과는 급여 생활자가 “노조 비용”을 희생할 수 있게 하는 구매력의 느린 발전으로 분담금이 이제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결국 가입의 비용-이익의 관계가 위기의 영향으로 악화된다. :노조원이 된다는 것은 실업이 닥칠 때 위험이 더 크다 .

N. Pinet, Eco Flash. 63호, 92. 11

자료 4. 프랑스 사람들은 그들의 노조를 더 믿는다.

1979년 이래로 본적이 없다. 3년 만에 급여생활자들은 노조에 믿음을 다시 찾았다. 첫 번째 설명은 정당에 대한 실망이 다른 기관으로 향하게 했다. 그러나 특히 95년의 대파업이 관계를 다시 이었다. 91년 40%에 머물던 믿음이 오늘날은 55%이다.

le nouvel observateur, 1997 10. 4, 10(11월에 실시된 Sofres의 설문)

토론을 시작하기 위하여

- 1. 프랑스 노조의 상황이 어떤 점에서 다른 나라와 다른가(자료1)?
- 저자는 프랑스의 가입률 약화를 어떻게 설명하는가(자료2)?
- 저자는 노조 무게의 감소를 설명학 위해 어떤 근거를 대는가(자료3)?
- 프랑스 사람들은 그들의 노조를 신뢰하는가(자료4)?

2. 어떻게 노조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가?

- 어떤 점에서 <영향>의 개념이 객관적인 동시에 주관적인가?
- 어떤 점에서 민주주의의 노조는 반권력적인가?
- 노조의 약화는 어떤 위험을 야기 할 수 있는가?

p77 토론 2 - 연합 : 시민권 표현의 새로운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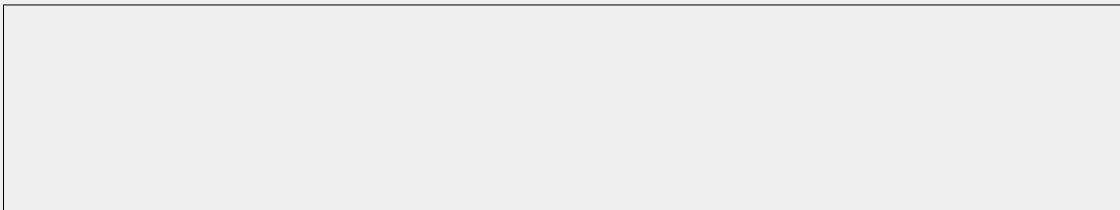
1980년대 이래 단속적으로 연합이 나타났다. 이는 특정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노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主)가(加)입(入)과(加)입(入)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그렇지만 연합이 지속적으로 몇몇 분야에서 노조를 대체하고, 이익 옹호의 새로운 모델로 될 수 있을까?

자료 1. 연합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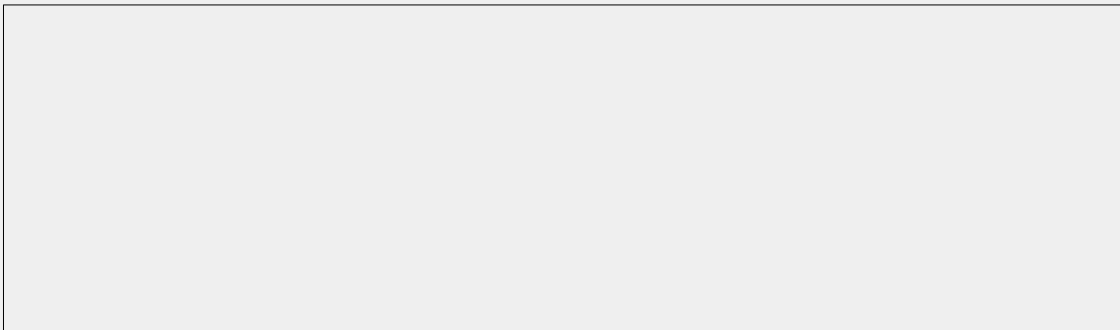
1986년 이래 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행동이 권리 요구의 영역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일시적인 노조(연합)가 지속적인 노조를 대신한다. 1986년 10월(대학 입학선택에 관한 드바케 법안)에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 지고, 한 달 뒤에 철도종사원이, 1987년 7월에는 교사들이 다시 되풀이했다. 1988년 가을에는 간수와 간호원들이 차례로 연합을 구성하여 큰 사회 풍경의 변화를 나타냈다. 연합은 노조의 약속과 전술적인 화해를 거부하고, 극단적이다. 분열되어서 불만을 모으고 표현할 능력이 없다고 비난 받는 노조와 관계가 있다. 여러 노조사이로 확장되고, 자신의 운동을 결정하는 노동들의 모임이고, 위임된 대표들인 연합은 그들의 효율성을 입증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고전적인 노조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주장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연합과 어떻게 지속적인 사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노조가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크게 모아서 연합은 92년 운전사들의 분쟁 이후 사라졌다.

르네 부리오, 노조와 직장조직, 기관과 정치생활에서, 파리, 프랑스 문서관리, 1998

자료 2 고교생 연합



자료 3. 대학생 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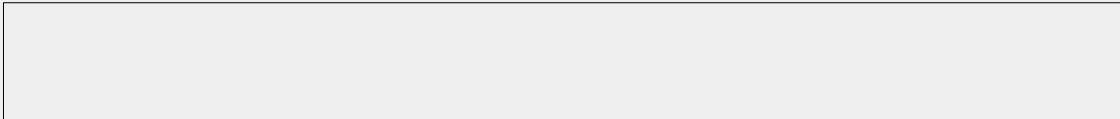
p78

자료 4. 연합의 무기 : 시위

이러한 시위는 대체로 파업의 무기(말의 원래 의미의)를 사용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행동이거나, 급여 생활자들의 범주를 넘어설 만큼 충분히 확장된 문제를 포함한다. 연합은 여러 차례 비난받은 바 있는 계획을 눌러 이기고 어떤 헌법도 예견하지 못한 민중 주도의 투쟁 방식으로 제4의 권력을 자처한다.

D tartakowsky, 권력은 거리에 있다. 파리, Aubier, 1998

자료 5. 소르본의 플라스틱 미술실에서 연합의 모임, 95. 11



자료 6. 1995년 운동의 주도자, 대학생

대학생들은 어느 정도 1995년 운동의 주도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개혁과 연구 조건에 주어지는 수단의 주체에 대한 대학생들의 항의를 뒤따라서 바로 사회개혁안에 대한 여러 분야의 항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80-90년대 부문별 학생의 동원은 비정치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앞선 항의들과 대조를 이루는 캠페인 운동의 문화적 계승이 없었다. 이렇듯 오늘날 연합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학생들의 수(2백만 이상) 때문에 프랑스에서 젊은이들의 상태를 충분히 대표한다. (...) 이러한 참가는 더 이상 "혁명적"이 아닐 수 있다. 혁명적일 수 있는 것을 향상시키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제롬 라파르그, 집단 항의, 파리, 나탕, 1998

토론을 시작하기 위하여

- 1. 어떤 상황에서 연합이 나타나는가(자료1)?
- 그 성격은 무엇인가(자료2)?
- 95년에 학생들은 무엇을 주장했나(자료3)?
- 98년에 고등학생들은(자료4)?
- 어떤 점에서 그들의 주장이 연합의 고유한 것이라 생각하는가(자료3,4)?
- 77쪽과 ()사진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는가?

어째서 당사자들은 늘 파업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가?
어떤 점에서 연합이 젊은이의 상태와 일치하는가?

2. 어떤 점에서 연합과 노조가 대립되는가?

그들의 역할은 노조에 보완적이 될 수 있는가?
그들의 행동은 특정한 이익을 옹호하는데 한정되는가?
어째서 집단적인 행동이 시민권 실행의 기본적 차원인가?

p79 6.B 쟁의와 단체협상

노조는 급여 생활자들의 보호를 보장한다.

봉급, 근로조건, 안전에 관한 중요한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 자발적인 노동자들에 의한 쟁의나 노조가 책임을 지는 집단 쟁의(작업의 일시적 중단이나 태업...등)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그들의 불만을 표현하거나 주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파업이다. 파업이란 노동자들의 합의로 결정되는 작업의 집단 중지이다.

오랫동안 파업은 불법이었다. 프랑스 혁명은 동업조합을 금지할 목적으로 모든 형태의 직업적 모임을 금지했다. 파업은 벌금이 따르는 범죄로 취급됐다. 파업을 합법화한 것은 나폴레옹 3세였으나 당시의 파업은 곧 노동 계약의 정지로 이어졌고 재고용이 보장되지 않았다. 1946년이 되어서야 파업이 헌법으로 보장된다. 공공 분야에서는 아직도 제한적이다.

단체협상이 제도화 되었다.

쟁의를 줄이기 위해 쟁의를 조절하는 절차가 시행되었다. 단체 협상은 특히 노조와 고용주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해 준다. 이 합의는 후에 관련 기업 전체에 적용된다. (업종, 국가 차원의 활동 분야) 19세기말 사회 운동의 영향으로 국가는 규정의 실행과 첫 번째 단체협상의 적용으로 노동관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1919년이 되어서야 단체 협약이 합법적인 제도가 된다. 1950년부터 단체 협상이 전체적으로 발전했다. 이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동원과 매년 임금, 노동시간, 노동기구에 대한 협상의 의무화 덕분이었다. (82년 오루법 후부터)

노동 쟁의는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실업과 고용의 불안정, 경제성장의 둔화의 특징을 보이는 현 시기는 단체 행동에 오히려 불리하다. 1970년대 이래로, 95년을 제외하고는 파업의 횟수와 기간이 줄었다. 대신 생산직에서 일반적이었던 파업이 서비스 분야에까지 확대되었다. 더 지방화(분권화)한 쟁의는 종종 고용과 임금 때문에 일어난다. 노동 조건의 개선이나 정당한 지위(간호사)의 인정도 파업을 통해 요구하는 사항이다.

연표

- 1906 노동부 창설
- 1919 단체 협약이 법 체제에 따름
- 1936 공공 권력이 노조가 사인한 단체 협약을 확대할 수 있음
- 1936 기업에 종업원 대표 설립
- 1946 헌법에 파업권 기입
- 1963 공공 분야에서 파업권을 규정한 법
- 1950, 1971 기관 수준에서 합의를 용이하게 하는 법
- 1982 기업이나 업종 차원에서 협상의 의무와 제정
- 1996 노조 대표가 없는 기업에서 노조의 위임을 받은 노동자나 종업원대표가 기업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음

핵심어

- 노동계약의 정지** : 각 당사자의 의무가 실행되지 않는 기간(노동자는 일하지 않고 고용주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음)
- 공공 서비스**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통제하는 활동
- 업종** : 같은 활동을 하고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전체
- 활동 분야** : 주된 활동이 같은 기업 전체
- 단체 협약** : 노동 조건에 대한 노동자 대표와 고용주 사이의 단체 합의. 단체 합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산업 분야를 포함한다.
- 단체 행동** : 물리적 · 정신적 이익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를 모으는 운동

"파업권은 법과 규정안에서 실행된다."
- 1946년 헌법전문, 1958년 헌법에 통합됨

토론 3 -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공공 분야에서의 파업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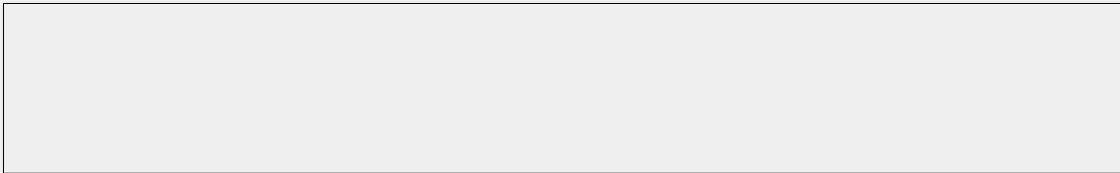
공공분야에서 파업권은 공공 서비스의 지속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양립해야 한다. 몇몇 공무원은 이 권리를 전혀 갖지 못하고(군대, 경찰, 법원), 몇몇 분야에서는 파업 중에도 최소한의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한다.(라디오, 텔레비전) 게다가 예고가 준수되어야 한다. 장차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의 파업권을 더욱 제한해야 할까?

자료 1. 공공 분야에서 파업권이 제한되었다.

공공 분야의 직원들이 파업을 위한 작업 중단을 합의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예고해야 한다. 예고 기간 동안 관련 당사자들은 협상을 계속한다.(...) 이 조항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관계 직원이 관련된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

- 노동법, 파리, Daloz, 1998

자료 2. 파업 중인 간호사



- 파리, 99. 2. 21

자료 3. 파업권을 규제한다고? 세 가지 관점

a. 기본권을 다시 문제 삼을 위험성

오늘날 주민을 위한 서비스 개발의 옹호자, 즉 보증인은 직원들이다. 점잖은 척하며 '규제'라고 표현하지만, 공공분야의 파업권이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이 사람들은 이 규제를 통해, 공공분야와 사적인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광범위하게 문제 삼으려는 것이다. 공공 분야의 파업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는 거의 모든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긴요한 것으로 치자, ~~이런 논리는 공공분야와 사적인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광범위하게 문제 삼으려는 것이다.~~

- 헬리 셀라우이, 노동자의목소리, 2571호, 1997

b. 공공 분야 직원들의 특권

사기업의 직원들은 파업을 할 수 없다. 자신들의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원과 고용주 사이의 직접적인 경제 관계의 의식이 파업을 자본주의 영역에서 몰아낸다. 반대로 공공분야 직원들에게 파업은 위협이 없는 활동이다. 해직될 위험도 회사가 없어질 위험도 없다.

- 귀이 소르망, 피가로 잡지, 93. 10. 29

c. 쓸모없는 규제

파업 중에 최소한의 서비스가 유지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철도에 용량을 초과하는 승객을 태울 위험성은 없는가? 95년 12월 초에 파리 시민을 대상으로 CSA가 실시한 설문문에 따르면 8명 중 2명만이 파업을 인정하고, 70%가 최소한의 서비스를 원했다. 새로운 규제를 가해야한다는 요구보다는 철도 · 지하철 · 버스 · 우편의 중지 에 대한 적절한 대체 수단의 실시를 더 많이 요구하였다.

- 샤를르 비얏, 사회적 관계, 96. 2.

토론을 시작하기 위하여

1. 노동법에 의하면 공공분야에서 파업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자료1)

간호원의 사진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자료2)

공공분야에서의 파업권 제한이 가지는 위험성은 무엇인가? (자료3)

공공분야에서의 파업권 실행이 어떤 점에서 위험성이 적은가? (자료3)

설문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들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자료3)

2. 왜 공공분야에서 파업권의 실행이 규제되는가?

파업권의 새로운 제한에 관한 토론에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공공 서비스 요원들은 파업권 실행에 있어 충분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분야에서의 제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

핵심어

파업의 예고 : 파업결정과 실행사이에 지켜야할 시차(공공분야에서는 의무적이다.)

p81

총정리와 평가

총정리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할 권리, 기업에서 완전하게 대표될 권리, 허
가 없이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의 2세기의
걸친 싸움이 필요했다. 노조는 노동자의 물질적 · 정신적 이익을 옹호하고,
고용주와 공권력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사표출을 보장한다. 영향력 ~~과~~ ~~가~~
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사회 경제적 측 ~~과~~ ~~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주체이다.

노동자 문제에 관련된 사회분쟁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화되었지만, 단체
협상 덕분에 또한 상대적으로 평화로워졌다. 실업의 압박과 고용의 불안정으
로 그 수가 줄었다 해도 (사회 분쟁은) 특히 연대의 탄생이 증명하듯이, 다른
영역(소비, 교육..)으로 확장되었다.

종합과 쟁점

1. 노조는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 그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노조
에 대하여 헌법은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가?
2. 기업 안에서 직원들의 의사표출을 보장하는 기관은 무엇인가? 그 기관은
어떤 점에서 사회적 시민권 형태를 상징하는가?
3. 공공분야의 파업권이 어떻게 규제되는가? 어째서 그런가? 단체 협상은 어
떤 형태를 취하는가?
4. 민주주의에서 왜 복수노조가 필요한가? 연합은 사회 역할의 새로운 주인
공이 될 수 있는가?
5. 파업권과 시민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공공 분야의 파업권 제한
에 대한 찬반에 원용되는 논거는 무엇인가?
6. 어떤 점에서 협상과 사회적 분쟁이 연결되어 있는가?

탐구

- 19세기말 이래로 프랑스에서 파업의 역사에 관한 서류를 찾으시오. 특히

이 주제에 관해 쓴 문학작품의 저자와 파업의 역사를 조명한 영화를 찾으시오.

- 1968년 5월에 관한 기록 영화를 기획하고 토론하시오.
- 대규모 유럽 노조 연맹과 그들의 유럽 차원의 주장은 무엇인지 찾으시오.
- 주요 프랑스 노조의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고 비교하시오

p82 실제 문서 테스트

< 파업, 단체의 권리인가 개인의 권리인가? >

파기법원. soc, 96. 11. 13 : 법원 : [...] 유일한 방법으로 : 46년 헌법 전문 7항과 노동법 L521-1조에 비추어

디레 부인은 블라르 씨에게 농업노동자로 고용되어 돼지를 돌보고 있었다. 자기의 주당 시간에 더해 한 달에 한번 일요일에 돼지를 돌보고 먹이를 주어야 했다. 디레 부인은 자기의 봉급 인상 요구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라 주장하며 92년 4월 26일 일요일에 일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고용주에게 예고했다. 그녀의 고용주는 92년 5월 9일에 중대한 과실로 그녀를 해고했다.

노사조정위원회는 중대한 과실은 제외하고, 디레 부인의 불규칙적인 결근을 이유로 해고할만한 실제적이고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파업은 직업적 요구에 힘을 실기 위해 노동자들 간의 집단적 합의로 작업을 중지하는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직원이 하나밖에 없는 기업에서의 직원의 행동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 자신의 직업적 요구를 주장하고 지키는데도 혼자인 이 직원은 헌법적으로 인정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원심을 파기하고 무효로 한다.

■ 판결문을 읽다

판결문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포함된다.

-판결 참고사항 : 제소 받은 법원, 판결 날짜

-<허가> : <-에 비추어>라는 표현은 판결이 기초하고 있는 법 조항을 가리킨다.

-소송 상대자 :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소송을 제기당한 사람)

-사건, 즉 분쟁의 개요. 적용 가능한 법규를 결정할 사람들

■ 풀이

-결정의 이유 : 판사의 추론과, 판사가 이러저러한 해결을 채택하게 하는 법률적 논증

-판결 : 판사의 선고

■ 질문

제소 받은 법원은 어디인가?

법원에 의해 적용된 조항은 무엇인가?

소송당사자들은 누구인가?

불량씨 기업의 직원은 몇인가?

소송의 대상은 무엇인가?

어째서 파기법원은 파업에 대한 고전적 정의를 배제했는가?

경제 사회적 권리 측과 국가 국가법원관청의 의무는 무엇인가?

(4) 프랑스 시민교육 내용의 특징 - 시사성있는 현실과 사회적 보편 가치의 조화

프랑스 학교에서는 근로자들의 시위와 파업, 실업자 운동, 실업으로 인한 문제, 전국 노조가 중심이 된 사회운동 등에 관한 사진자료나 신문기사 등과 같이 시사성이 매우 높은 학습자료들을 교재로 활용한다. 이는 학교교육이 보편적인 지식과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는 일반적인 관념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상생활과 관계가 먼 보편적인 것만을 가르쳐서는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에서 교육이 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프랑스에서는 시사성이 높은 학습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의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V. 독일 학교 정치교육

1. 독일 정치교육의 뜻과 발전 과정

(1) 정치교육 분야의 논쟁

정치 교육 분야에 있어 개혁의 움직임은 이미 70년대 초에 헷센 주와 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 주에서 발행된 새로운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서도 구체화되었는데, 일부 보수주의 세력은 이를 두고 심지어 공산주의적인 맹교 또는 교화를 시도한다 하여 정치적으로 심각한 논쟁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논쟁에서 보다 더 진보적인 정치교육학자들은 특히 비판, 이익, 갈등, 지배, 민주화, 해방 등의 개념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반해서 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들은 다원주의, 정치적 합리성, 사회적 통합, 공익 의식, 사회 정치적 질서 또는 국가 질서에 대한 동일시에 큰 비중을 두었다.(허영식, 1987, 112-118. 허영식 1996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와 같은 격렬한 정치적 논쟁은 학교 교육에 있어서 정치 교육의 위치를 강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약화시켰다는 진단이 나오고 또한 정치적, 학문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정치 교육을 위해 어떤 근본적인 공통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짐으로써 정치 교육의 합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 보이텔스 바흐 합의 - 정치 교육을 위한 근본적인 원칙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 소위 보이텔스 바흐 합의(1976)인데, 이 말은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여러 정치 교육학자들이 보이텔스 바흐라는 소도시에 모여 개최한 학회의 결과를 일컫는 것이다. 베엘링이라는 토론 참가자는 여기서 합의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명제로 요약하였다.

가) 교화 또는 주입을 금지할 것. 가르치는 사람이 원하는 생각에 따라 - 어떤 수단을 쓴다 할지라도 - 학생들을 조종함으로써 이들이 자주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방해가 주어서는 안된다. 바로 여기에서 정치 교육과 교화 사이의 경계선이 그어 지는 것이다. 교화는 그러나 민주 사회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 그리고 두루 인정받고 있는 교육 목표, 즉 학생의 자율성과 상치된다.

나)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 있어서도 역시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 요구 사항은 앞에서 말한 요구 사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바, 그 까닭은 상이한 입장들이 드러나지 못하고 선택 가능성들이 은폐되고 대안들이 언급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 ~~기~~ ~~다~~ ~~는~~ ~~주~~ ~~임~~ ~~과~~ ~~의~~ ~~관~~ ~~계~~ ~~가~~ ~~되~~ ~~는~~ ~~것~~ ~~이~~ ~~기~~ ~~때~~ ~~문~~ ~~이~~ ~~다~~. 여기서 물어보아야 할 점은 교사가 심지어 교정의 기능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인데, 이를 달리 표현하 ~~기~~ ~~다~~ ~~는~~ ~~학~~ ~~생~~ ~~들~~ ~~에~~ ~~게~~ - 그들 나름의 정치적, 사회적 출신을 고려할 때 - 생소한 관점들과 대안들을 특별히 들추어 내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다) 학생은 어떤 정치적 상황과 그 자신의 이익(또는 이해 관계) 상황을 고려할 수 있고 또한 그의 이해 관계에 따라 당 ~~기~~ ~~의~~ ~~정~~ ~~치~~ ~~적~~ ~~상~~ ~~황~~ ~~과~~ ~~성~~ ~~경~~

다. 80년대에 교수학적으로 관심을 끈 새로운 내용으로는 도덕 발달, 노동, 제도, 미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분화된 정치 개념이 발견학적인 도구로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서, **각각의 정치적 주제를 분석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형식적, 과정적, 그리고 내용적인 계기(즉 정치 형식, 정치 과정, 정치 내용)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의 세 가지 차원은 정치 수업에서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 되었다.**

분화된 정치 개념 이외에도 제도 연구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복잡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지 않으**고, 국가 내평과 학교 내평** 소년의 일상 세계(미시 세계)와 정치(거시 세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되었다. 제도 및 정치 과정(갈등, 문제, 의사 결정, 절차 규칙 등)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전통적인 제도 연구는 주로 행위자의 시각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러한 제도와 정치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관점도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허영식, 17-18).

(4) 독일 정치교육 영역의 목표

독일 중등 전기 일반사회영역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최석진, 166).**

첫째, 독일 사회라는 제한된 범위를 초월하여 현대 사회의 제 문제영역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적 구조, 이해관계, 정치행위 등 다원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은 일반사회과 교육과정의 핵심요소로서 민주주의, 평화, 환경, 신기술, 국제화, 시장경제, 법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둘째, **“핵심자질”(Schlüsselqualifikation)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히 사회제도와 사회관계를 아는 차원을 넘어서 현대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질인 판단능력, 토론능력, 비판능력, 참여능력 등 핵심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민주적인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민주적인 사고와 태도, 관용, 타협정신, 갈등해결방법, 문제해결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일반사회과의 정치교육은 독일 통일과정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원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독일 정치교과서 목차 내용 3)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실체 정치 1 TatSache Politik 1 (중급1과정 공용, 탐색과정)	모리츠 디스트벡 (프랑트푸르트)	1998	우리나라 초등학교 5,6학년

《목차》

<p>함께 학교생활을 꾸려나가고 같이 책임진다.</p> <p>친구 사귀기 - 새 학급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것 배우기 갈등을 해결하는 것 배우기 학생들의 이익 대변 - 학급대표</p> <p>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학교생활 - 장애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기</p> <p>슈미트 가족을 결정을 내려야한다. 난 화가 난 것이 아니야.....! 마르코를 위한 학교는? 케테 콜비츠 종합학교 크리스토포루스 장애인 학교 결정 탐색</p> <p>물건 구입 : 새 자전거</p> <p>자전거 구입 - 문제가 없을까? 정보수집하기 시장을 이해하기 내 권리를 알기 우리가 학습한 성과물을 소개하기</p> <p>여가시간 즐기기, 여가시간 스트레스:</p> <p>학급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까? 여가 혹은 자연보호? - 찬반 논쟁 화면 앞에서 보내는 여가시간 우리에겐 별로 재미있는 일이 없어, 아니면? 여가시간이 없는 아이들</p>	<p>교통에 관한 모든 것</p> <p>우리 학교 근처의 여러 교통 끝없이 이어지는 교통 혼잡 주의! 교통사고! 깨끗한 공기에겐 우선 통행권? 소음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해결책 !? 행동을 시작하기 알덴도르프의 소동: 역할극</p> <p>정보가 우리들의 삶을 결정한다.</p> <p>우리는 전반적인 통찰을 한다. “너 이미 알고 있니...?” 정보를 퍼뜨린다. 정보를 자세하게 판별한다.</p> <p>도주 중인 사람들</p> <p>도주 중인 사람들 -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나? 왜 도망 다닐까? 우리 곁에 있는 도주자(난민, 망명자)들</p>
--	--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실제 정치 2 TatSache Politik 2 (중급1과정 공용, 탐색과정)	모리츠 디스트벡 (프랑트푸르트)	1998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목차》

<p>학교에서 학습하고 협력하기 우리학교 - 경험의 교환 우리들이 꿈꾸는 학교 - 미래의 작업실 시험대에 놓은 전형적인 본보기 사회 경험 -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과 관계 맺 은 것을 배운다. 어려운 판단 - 갈등 해결을 배운다. 협동 - 학교의 민주적 조직을 이용하는 것을 배 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 는 것을 배운다.</p> <p>가족 생활공간 한 지붕 다섯 가족 관계의 그물 - 세대간의 갈등 가족 내에서 역할 분담 - 어떻게? 형제자매 관계 환기 - 한부모 가정 실업 - 그 다음에는... 가족 -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곳?</p> <p>우리는 상품을 시장에 내 놓는다. 문제 : 어려움에 처한 진-텍스 주식회사 작업계획서 현재 진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유행과 소비패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시장에 내놓을 방안을 찾아보고시험해본다. 광고를 한다. 우리들의 성과물을 발표한다.</p> <p>포장하고! 포장을 풀고! 쓰레기통으로! 포장이야기 얼마나 겹겹으로 포장해야할까? 포장은 결국 쓰레기가 된다. 재활용 - 해결책?</p> <p>중독? 난 절대로 아니야! 일에 대해서도 중독이 될 수 있다! 이유는 항상 있다? 부모들은 아무 것도 몰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p>	<p>위기에 처한 안나 환각제 : 평화, 즐거움, 위험과 부작용을 동반한 펜케 이크 알코올 : 흥분, 걱정을 없애주고, 병들게 한다. 마약을 무력화 - 문제는 어떻게? 항상 주의할 것!</p> <p>청소년이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된다면..... 청소년 범죄 -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법정에 선 메벳-역할극 청소년 범죄의 원인 외국인 범죄에 관한 논쟁 청소년 감옥 - 찬반 논쟁</p> <p>현장 정치 :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 지역조사 지역 행정 : 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지역 조례 : 지역에서 누가 결정권을 자니고 있나?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 공동 결정권을 얼마나 행 사하고 있는가? 지역사회와 상호교류 노이이젠부르크에서 일어난 풀러논쟁 1부 노이이젠부르크에서 일어난 풀러논쟁 2부</p> <p>선거는 함께 결정을 한다는 것, 혹은? 우리가 바라는 꿈의 정당을 만든다. 왜 선거를 할까? 선거전 - 필요악? 선거인 - 힘이 있을까 아니면 무력한 사람일까? 나 스스로 뭔가를 한다. -선거전 프로젝트 어떻게 선택을 할까?</p> <p>브라질의 빈곤 : 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여러 얼굴을 가진 브라질 산토스 가족 : 소농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멘데스 가족 :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탈출 코임브라 가족 : 도시로 도피 문제를 분명히 함 - 해결책을 찾아 봄</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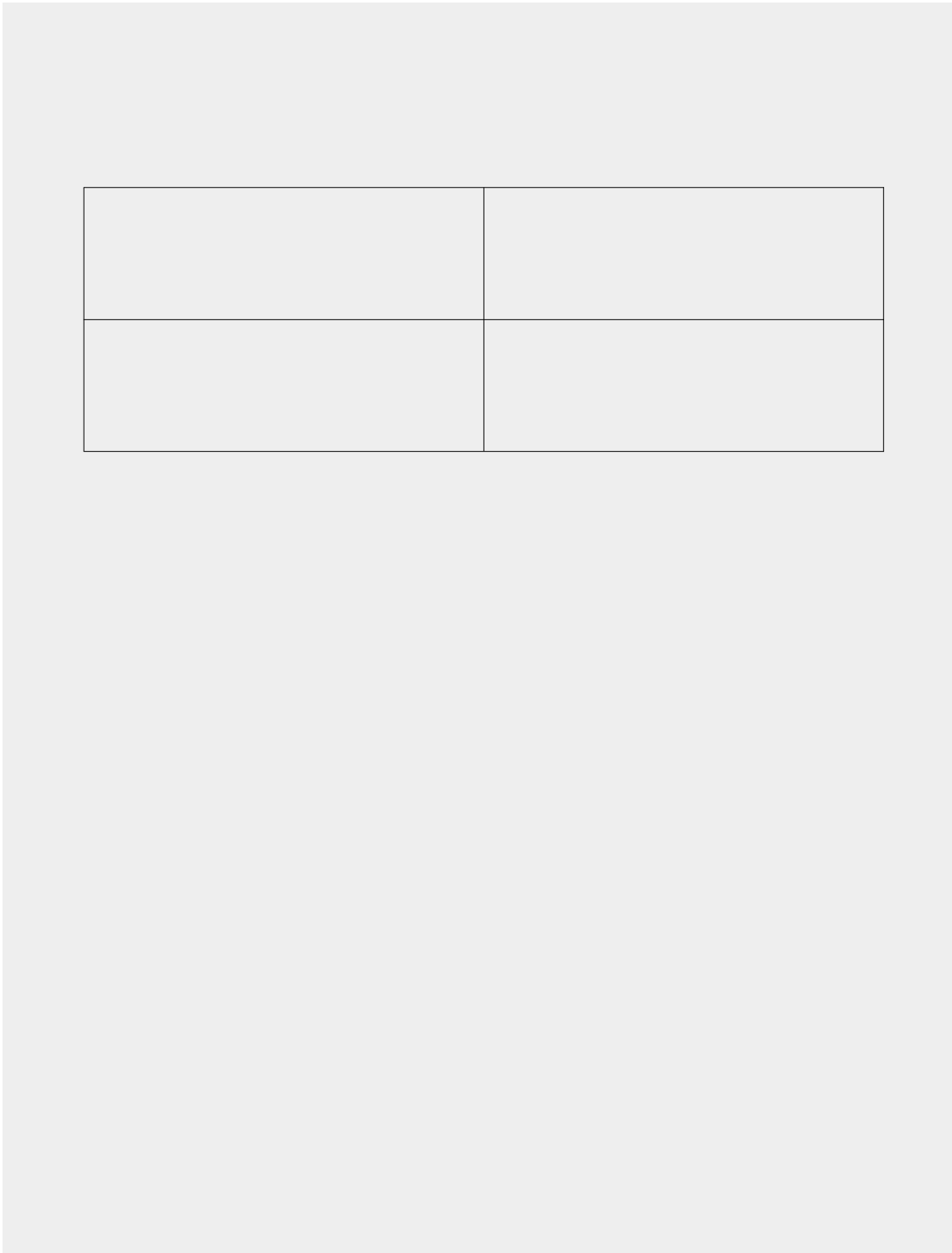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실제 정치 3 TatSache Politik 3 (중급1과정 공용, 탐색과정)	모리츠 디스트벡 (프랑트푸르트)	1998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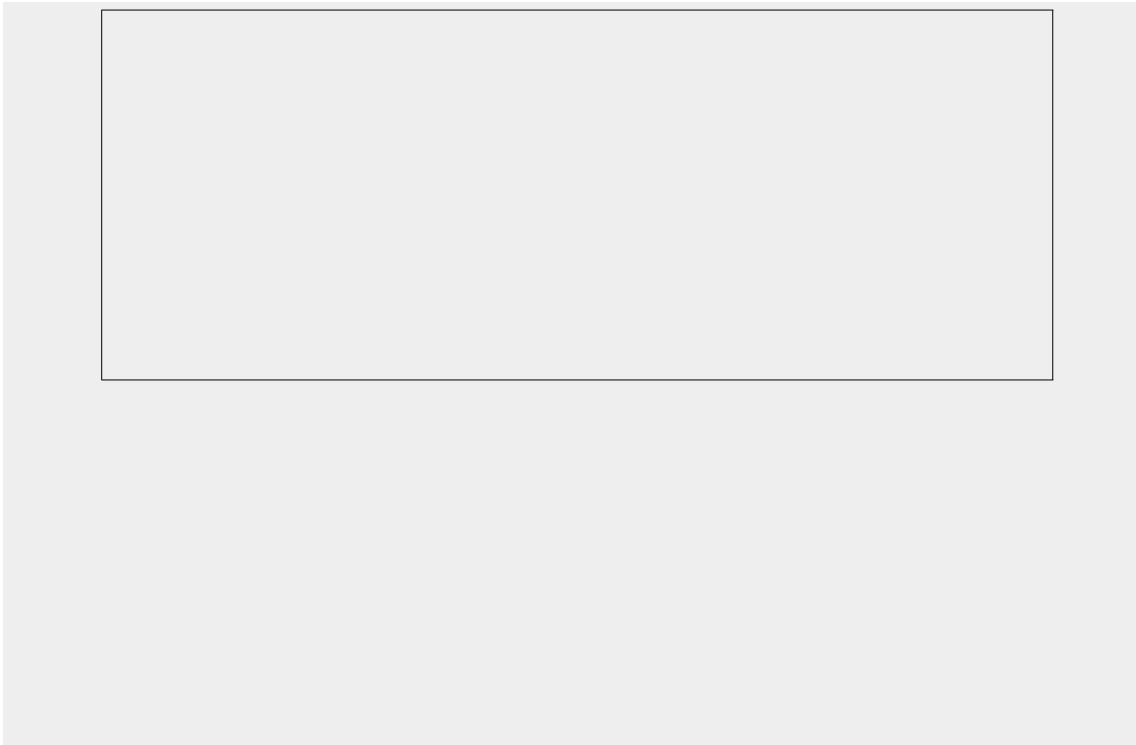
<p>우리자신에 관하여 : 오늘날의 젊은이들 우리가 화제로 삼고자 하는 것 워크샵 1 :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 워크샵 2 : 독립적이 되는 것. 워크샵 3 : 우정과 패거리 워크샵 4 : 우익의 폭력 우리는 우리가 작업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에 부친다.</p> <p>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평등 - 문제가 되는가? 아이와 직업적 성공 - 어려운 결정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생설계 여자의 일 - 남자의 일 가족과 직업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헌법에는 남녀동등권을 어떻게 나타냈었나? 여성과 정치</p> <p>멋진 새 노동세계 노동세계에서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은? 기술의 변화 - 전자공학이 노동세계를 변화시킨다. 테일러 주의에서 그룹작업으로 : 노동조직의 변화 노동시간? -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관한 토론 필요한 자격증 - 변화된 노동세계를 위한 새로운 자격증 프로젝트 : 노동시장을 학교로 끌어들이기</p> <p>아직 기후 재앙을 제어할 수 있을까? 지구는 더워지고 있다. 지구 온실 독일인을 위해 5개의 지구!? 인류의 미래를 이룰 능력 원자력 : 기후 재앙 대신에 원전사고 자동차와 기후 온실효과로부터 벗어날 탈출구:부피탈의 경우</p>	<p>정부조직 : 의회민주주의 “베를린에서는 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독일 국회의원들 독일 국회의 조직 정부와 야당의 투쟁 독일국회의 여성들 법의 제정 : 상점세점시간에 관한 법의 제정의 경우</p> <p>유럽의 미래 유럽청년의회가 열리면 - 모의 훈련 제1차 위원회 : 유럽 연합 - 국가 연합 혹은 연방 국가 제2차 위원회 : 유럽 내부 시장 -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과 사회보장제도 제3차 위원회 : 경제통합과 단일 통화 : 마르크화에서 유로화로 마무리 총회 : 우리는 유럽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p> <p>하나 된 세계에서 평화를 만든다. 국제 갈등 : 아주 멀리 - 아주 가까이 이스라엘 - 팔레스티나 갈등 : 갈등 분석 UN의 가능성과 한계 미국 : 마지막 강대국? 독일 외교정책 : 이완되어 가고 있는 강대국의 정책? 독일 방위군 : 자기 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로-하지만 독일 단독으로는 절대 안 된다. 무기 : 적으로부터 보호와 일자리를 위하여 혹은 단순한 살상무기? 평화를 위하여</p>
--	---

3. 독일 교과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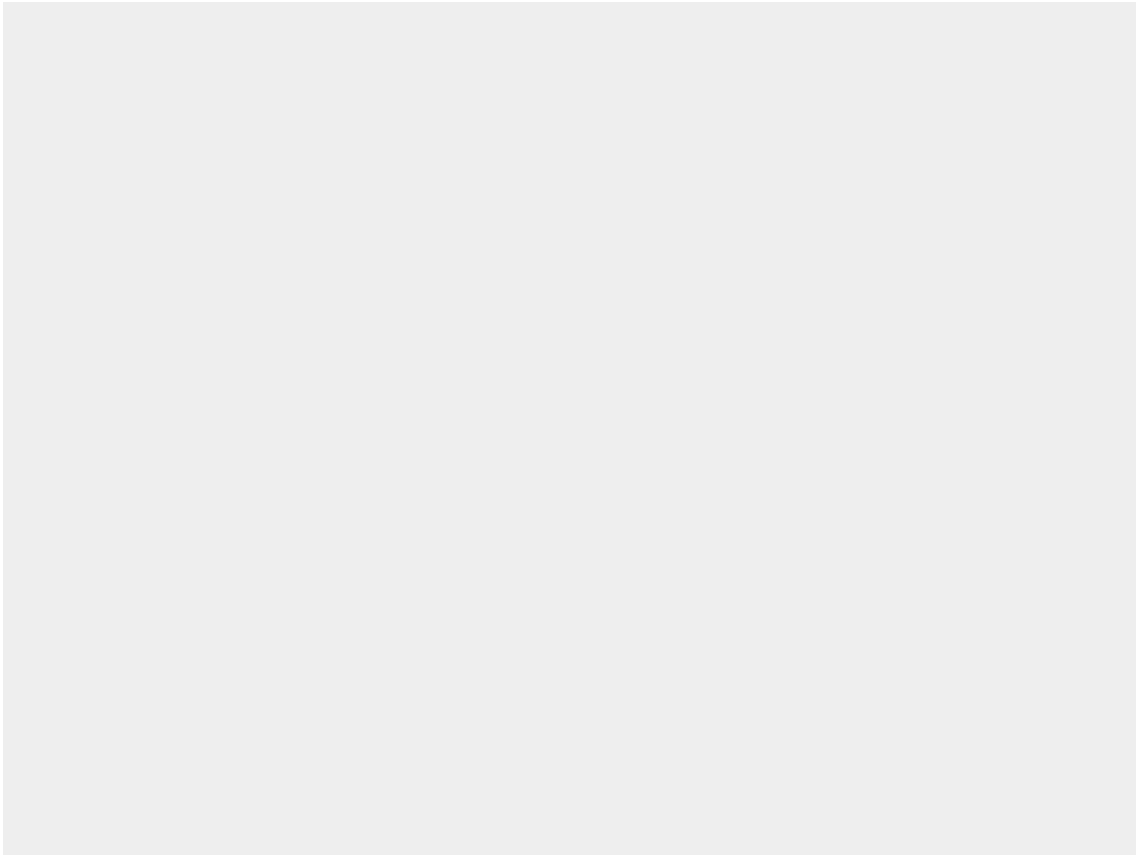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앞의 목차에서 소개한 실제 정치 2 교과서 '선거는 함께 결정을 한다는 것, 혹은?' 단원의 일부분만 소개하고자 한다.



유럽과 한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비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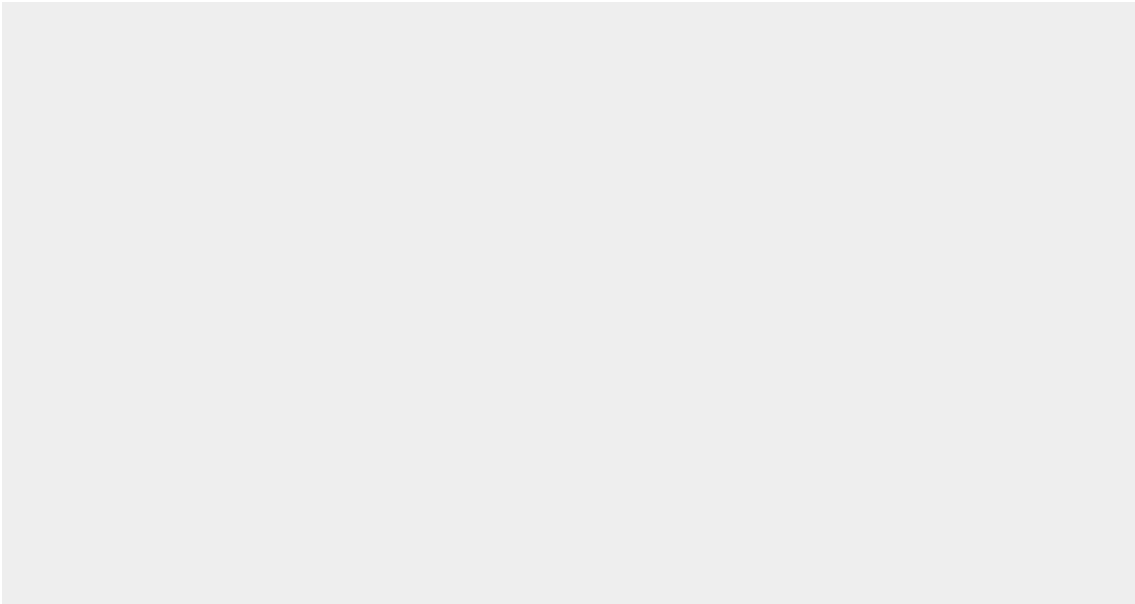


@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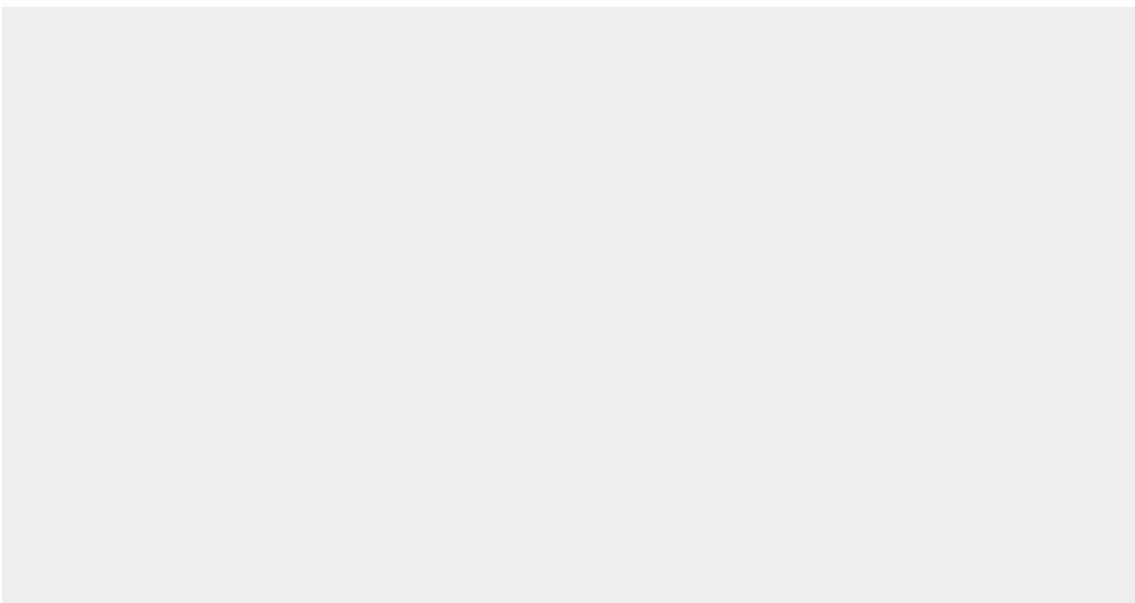
› J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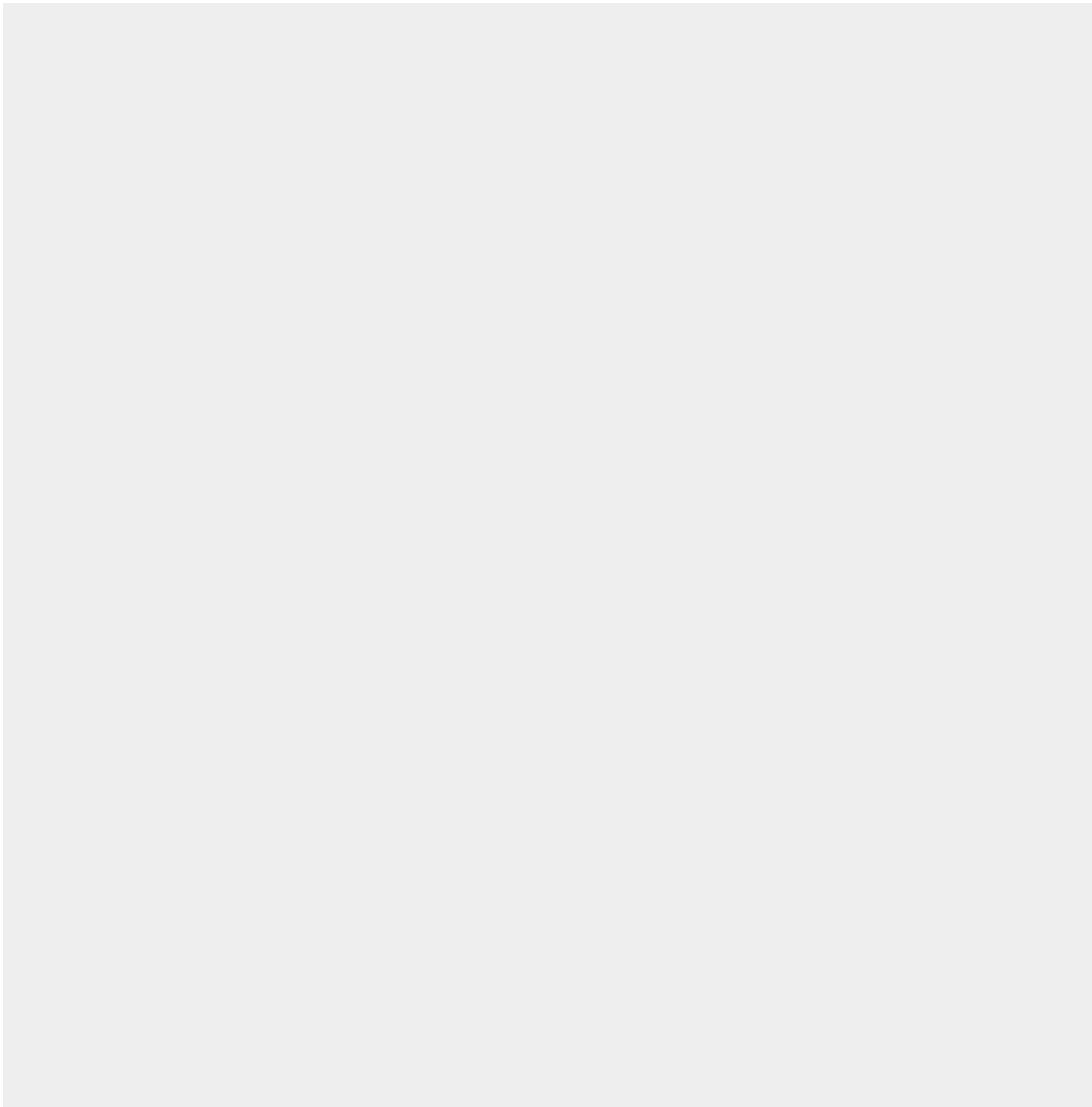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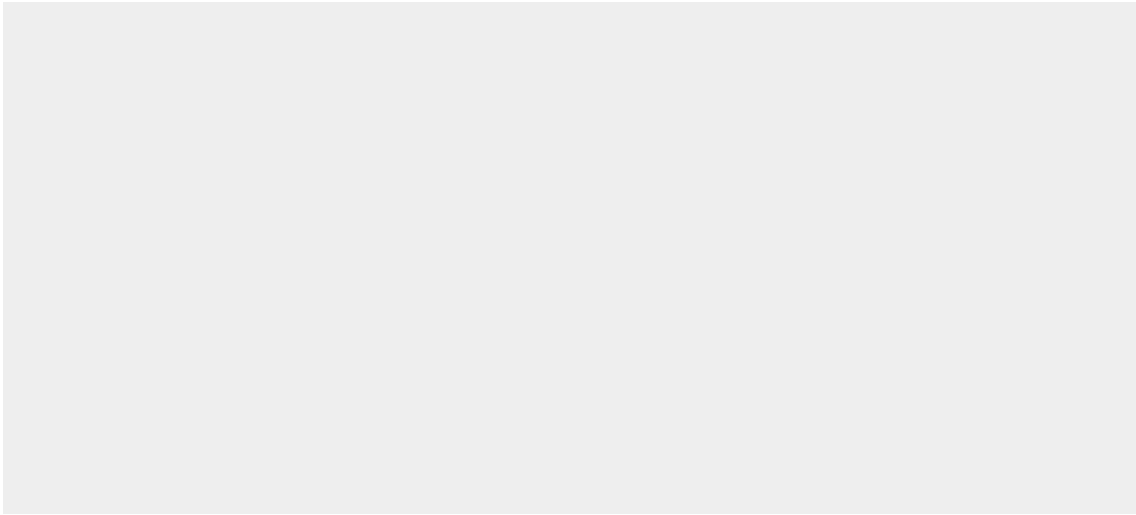
광고 판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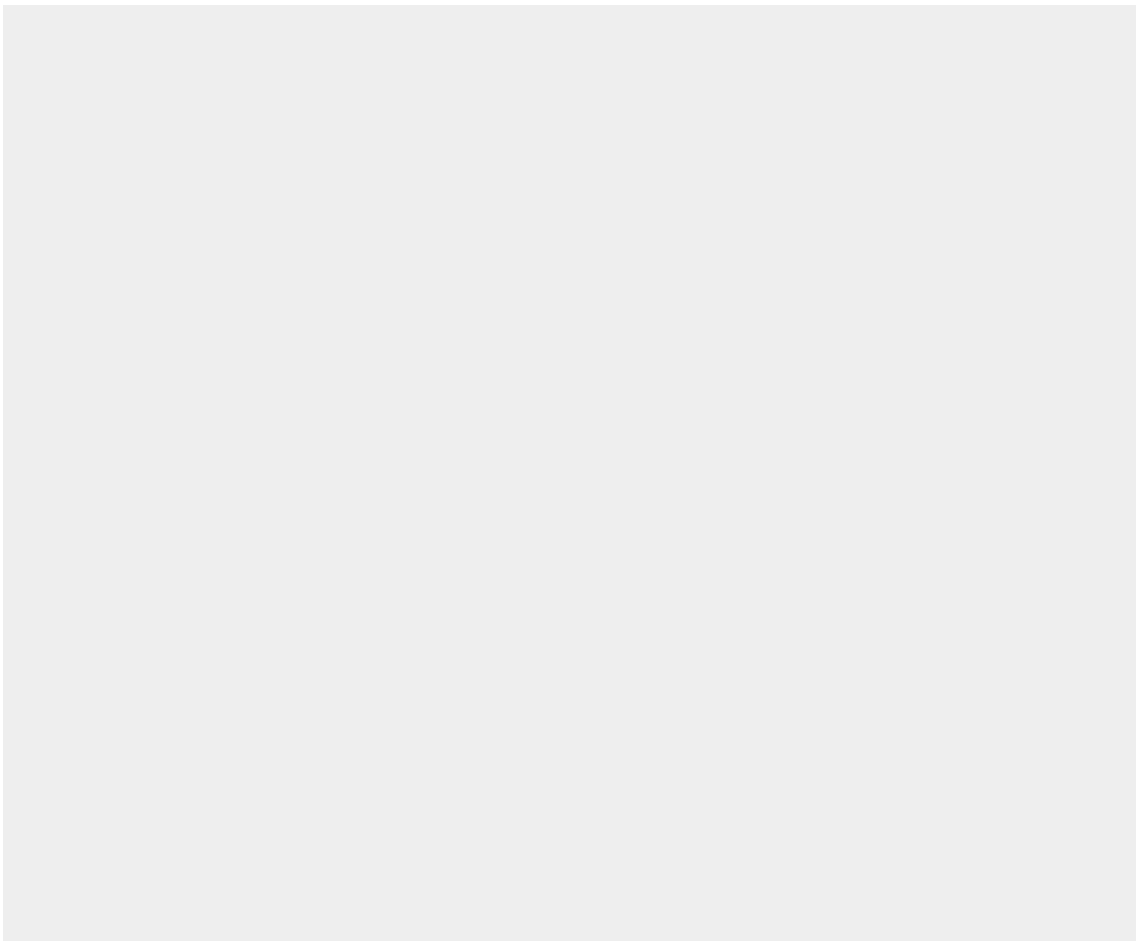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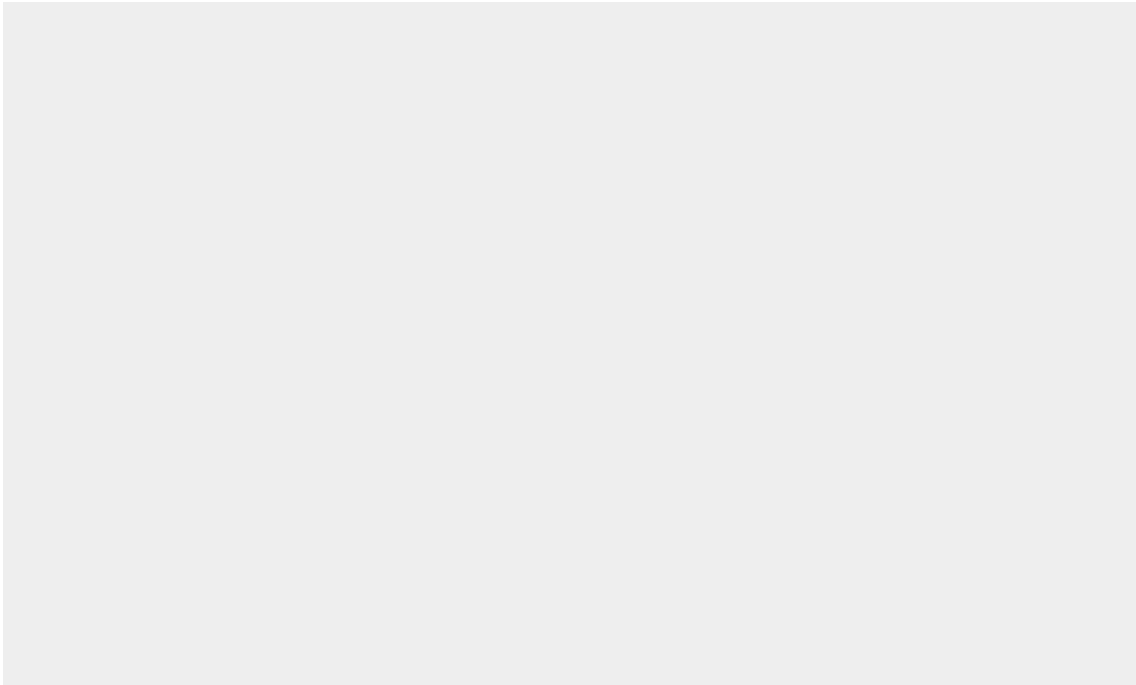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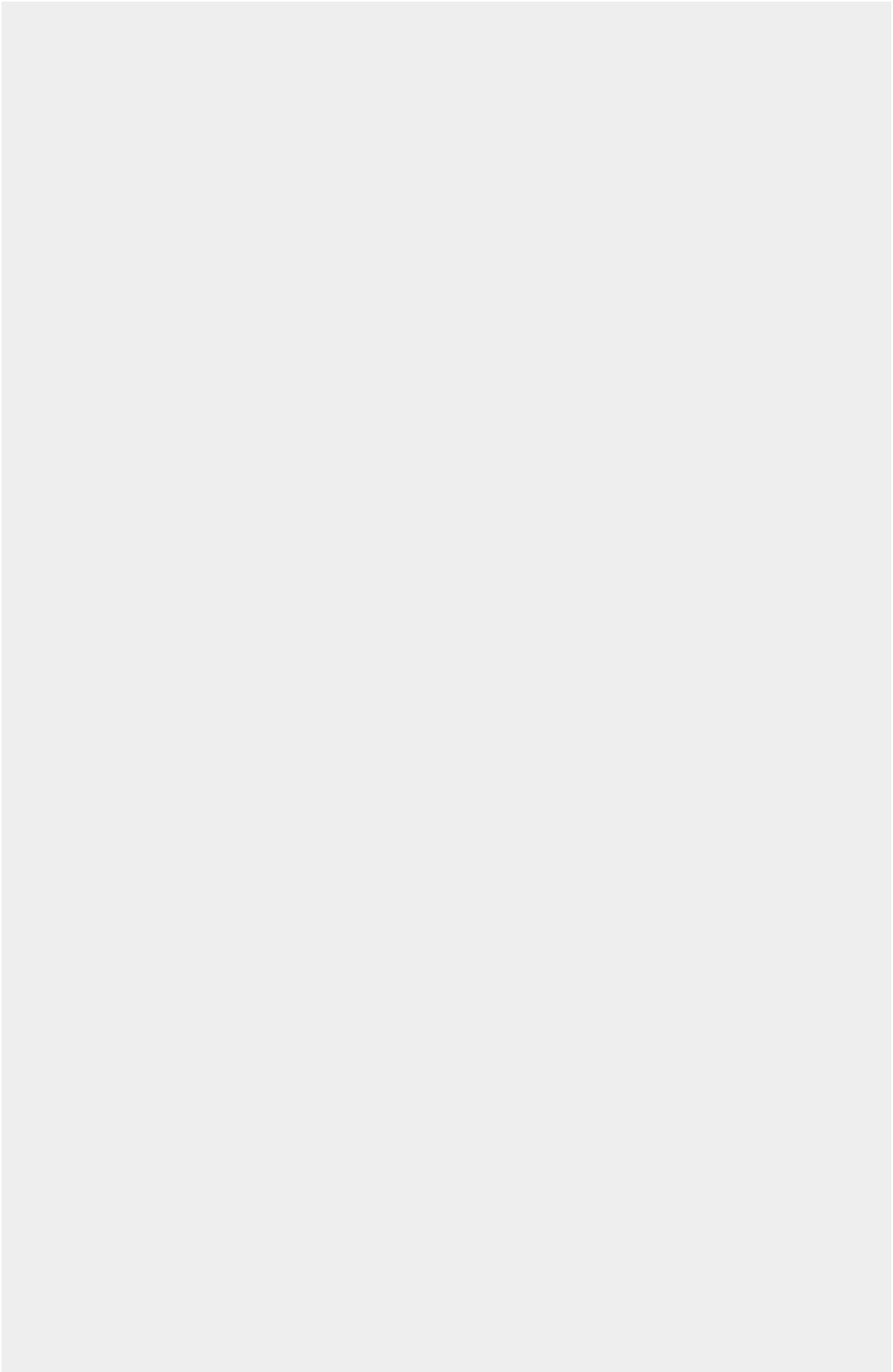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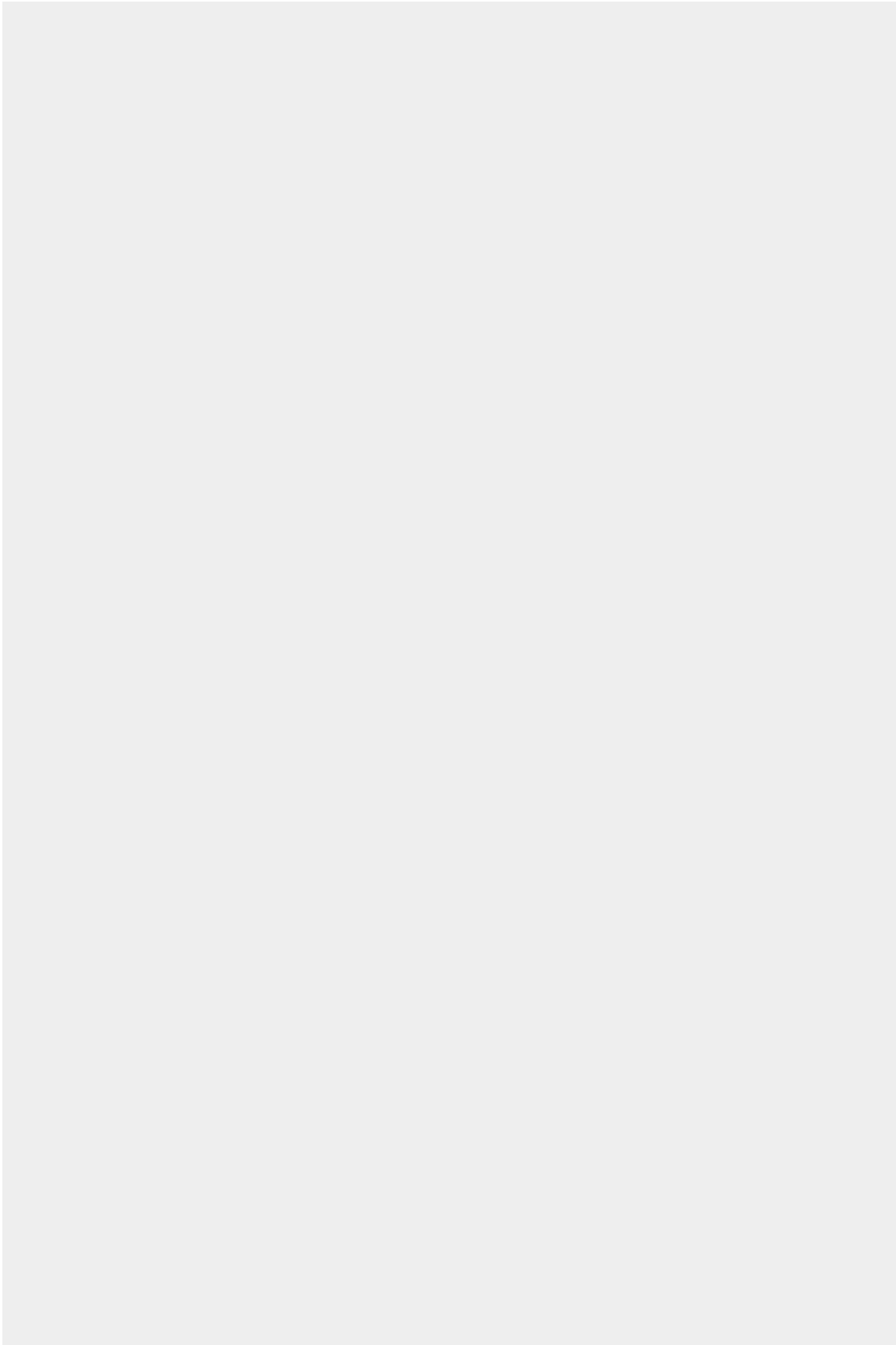


삽화	사진

출처:슈피겔 슈페치알1/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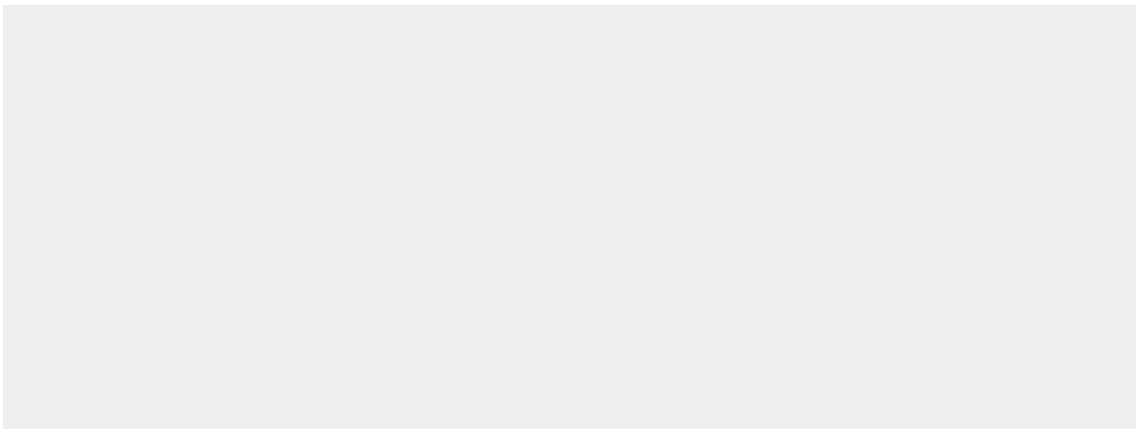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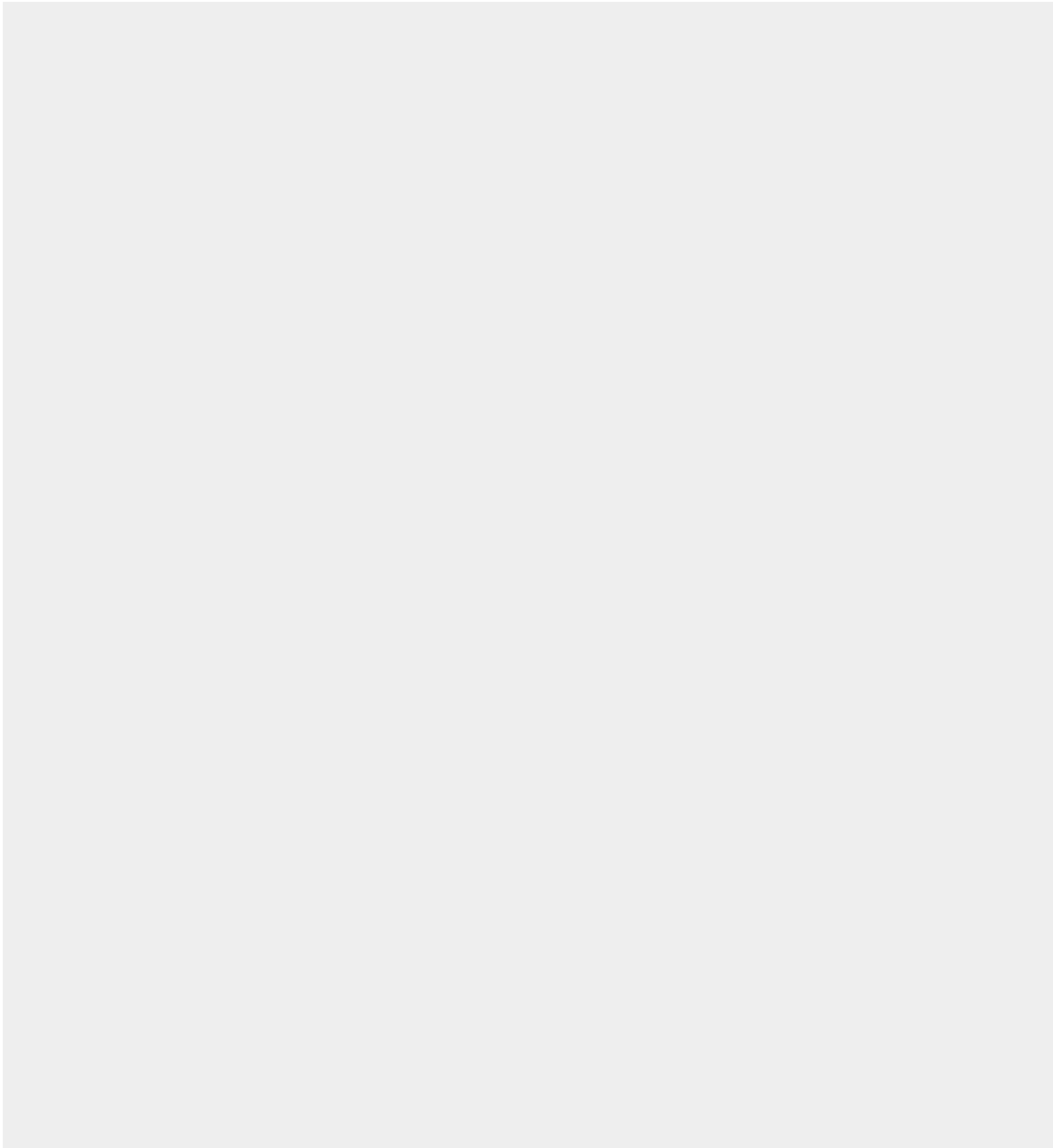
유럽과 한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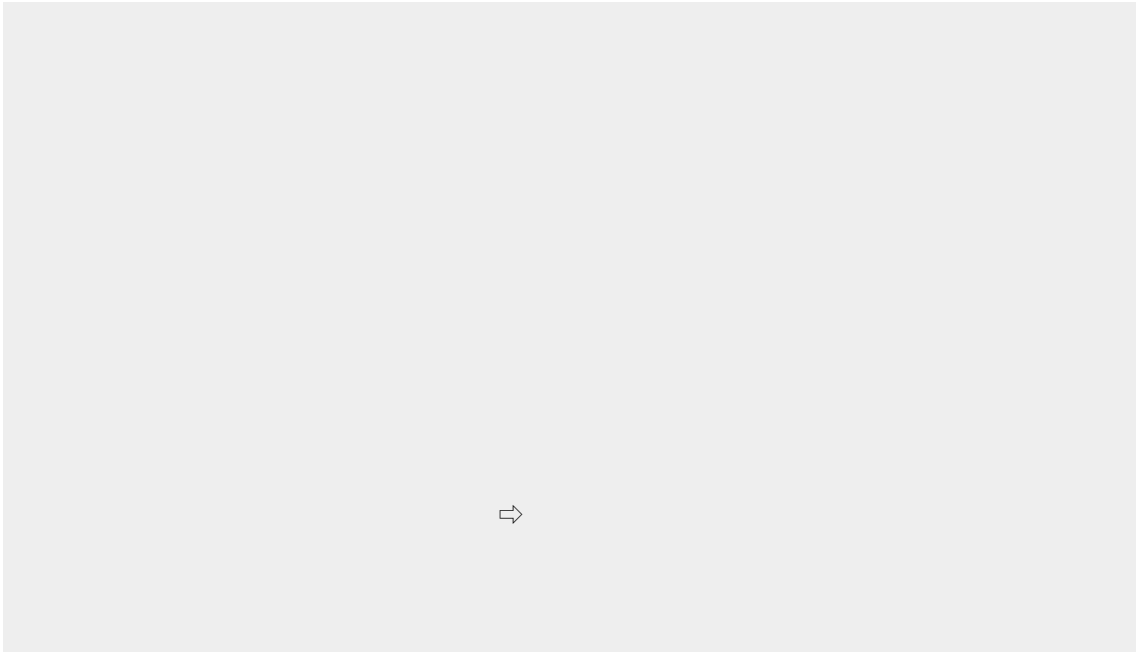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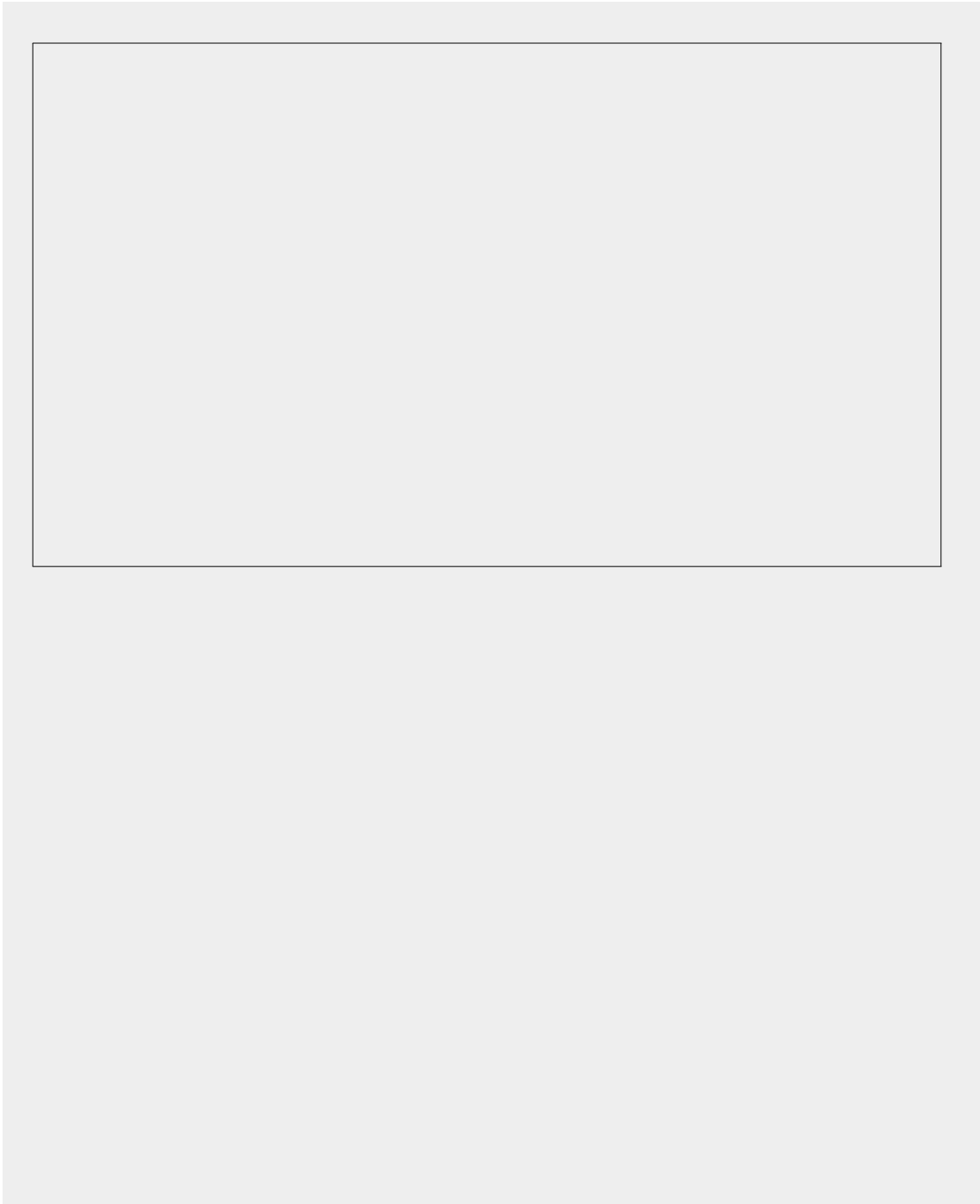


--	--

--







참고문헌

- 강대현 외(2004). 『사회과 교육 내용 적정성 분석 및 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4-1-4.
- 김원태(2005). '외국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알아보기',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을 위한 활동가 대회 자료집』. 전국사회교사모임
- 김원태(2005). '외국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에 비추어 한국 일반사회영역 교육내용 아파하기', 『2005년도 정기학술대회자료집』.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류재택 외(2004). 『사회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4-4-5.
- 모경환·이정우(2004). "좋은 시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36권 1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박장현 (2003). '독일의 학교 노동교육 실태', 『선진 5개국 학교노동교육 실태』. 한국노동교육원 연구보고 KLEI실태보고서 03-2
- 신선미 (2003). '프랑스의 학교 노동교육 실태', 『선진 5개국 학교노동교육 실태』. 한국노동교육원 연구보고 KLEI실태보고서 03-2
- 윤기석(2004). "프랑스의 민주시민교육". 심익섭 외, 『한국민주시민교육론』, 엠애드
- 이명희외(2000). 『사회과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0-12.
- 이현경(2003). '영국의 학교 노동교육 실태', 『선진 5개국 학교노동교육 실태』. 한국노동교육원 연구보고 KLEI실태보고서 03-2
- 장원순(2003). '한국사회과교육에서 시민의 실천문제와 과제'. 『시민교육연구』. 제35권 제2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송현정(2001). "시민사회의 개념 변화와 현대시민교육의 방향 모색". 『시민교육연구』, 제32집.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추정훈(2004). "민주시민성교육 과정 속에서의 민주주의 교육". 『시민교육연구』, 제36권 2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최석진외(2001). 『사회과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1-5.
- 허영식(1996). 『민주시민교육론-독일정치교육과 역사교육중심으로』. 배영사
- 홍세화(2005). "나눔과 분배, 그리고 공공성". 한겨레신문 2005년 8월 25일 23면
- 전국사회교사모임 <http://socioedu.njoyschool.net> / 연구4-교육과정연구/ 4080. 외국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에 비추어 한국 일반사회영역 교육내용 아파하기.hwp
- 전국사회교사모임 <http://socioedu.njoyschool.net> / 연구2-사회참여분과/ 4141. 시민권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교육' 교과목 신설 제안.hwp